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영적으로 물질로 점점 어려워지고 혼탁해지고 있지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참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하여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삶에서 승리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3)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8호 2012년 1월 2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깊어지는 빈부갈등

2012대선 중대변수로 부상

퓨리서치센터, 월가시위대 운동으로 표출, 대안마련요구 보도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이동성향이 다른 서방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월가를 점령하라(The Occupy Wall Street)"는 운동이 1%의 가진자와 99%의 못 가진 자와의 갈등 양상으로, 미디어에 연일 보도되자, 미국인 대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에 따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빈부의 갈

등에 자신들도 희생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지난해 12월 6-19일 성인 2천 4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Rising Share of Americans See Conflict Between Rich and Poor), 2/3 즉 66%가 "미국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가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문문의 표본오차는 ±2.9% 포인트다.

미국인들은 인종갈등과 이민자 문제보다 빈부갈등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미국인은 66%로, 본토인 대 이민자와의 갈등(62%)이나 흑인과 백인 간 갈등(38%)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특히 빈부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자는 30%로, 1987년 관련 설문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계급 갈등을 느낀다고 답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계층은 민주당원, 청년, 여성, 흑인들이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009년 조사에서는 이민자와의 갈등이 빈부 갈등을 미국 사회의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47%에 머물렀지만, 무려 19%나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미 언론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촉발된 빈부 갈등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미 확산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리처드 모린 퓨 리서치 관계자는 "소득 불평등 논의는 더 이상 경제학자들만을 위한 화두가 아니다"며 "신문의 경제면이 아닌 1면을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력하는 만큼 성공한다는 관념은 구시대 유물이 되고 1% 가진자와 99% 못가진자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월가시위대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의 계급 논쟁은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오랫동안 이런 인식들이 계속됐고 이것이 월가 시위를 계기로 촉발됐다는 평가다. 시카고대학 산하 제너럴소셜서비스의 탐 W. 스미스 교수는 "미국인들은 항상 재벌과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이것이 (이동이 불가능한) 카스트 제도라기보다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위치들이라고 믿었다"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포기하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43%의 "응답자가 부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큰 야망을 갖거나 열심히 공부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계급투쟁 논의는 미국 정치 논쟁의 주요 사안이 되면서 올해 대선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이 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다른 공화당 내 대선 후보 주자들로부터 중산층이란 표현을 쓰거나, 과거 사모펀드 운용시

절 대량 감원을 한 것에 대해 비판 받고 있다.

또한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간소득 계층의 백인 미국인들 사이에서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계급투쟁 개념을 반대해 온 공화당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지난 2009년 38%에서 55%로 늘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3면으로 계속)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할렐루야 기독백화점 (718)762-0011
한국서적 (718)762-1200
임마누엘피아노(NJ) (201)943-567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호산나서점 (626)810-0014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백화점 (323)766-8793
(이외 신학대학 및 은행과 마켓)

▶ 기타지역

커틀릿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플로리다 탬파한인장로교회 (813)881-0069
조지아 아틀란타 말씀사 (678)957-1021
일리노이 헤브론교회 (847)394-8454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큰무리교회 (301)476-7613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새한교회 (215)402-992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게사 (704)332-5656
시카고 기독교복음방송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2면 예수그리스도의 노예... 절대 순종의 유일한 이유!



3면 2012년 중동평화 물꼬 헤쳐볼라 항방에 달려



7면 캄보디아의 이슬람화 운동을 분석한다 / 전호진 박사



14면 인터뷰 최창수 목사(용인중부교회)



15면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새라킴 사모(Christian Coalition)

TIME TO GET PERSPECTIVE

퍼스펙티브스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세계기독교운동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다루는 선교훈련입니다."

당신은 관점과 목적과 삶이 변화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퍼스펙티브스(원제: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세계 기독교 운동을 위한 관점)를 배우는 선교훈련프로그램으로써 USCWM(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랄프 윈터 박사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졌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PSP(Perspectives Study Program)입니다. 선교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선(GP대표), 손창남(OMF대표), 유익상(SEEDUSA 대표), 김혜택(GAP, GYM대표), 한철호(선교한국파트너스 대표), 신기환(IMB), 김요한(SEED USA) 선교전문가들이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합니다.

1주	살아계신하나님을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적관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한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2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 나라가 임하옵시며 열방을 위한 명령	역사적관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역사속에서 어떻게 일해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남은 과업은 무엇인가
3주	복음을 자유롭게 함		
4주		문화적관점	이념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은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넘을 것인가
5주	세계기독교 운동의 확장	전략적관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복음화된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6주	선교역사의 여러시대		
7주	남은과업		
8주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사랑의 다리가 되어		
9주			
10주	기독교적 지역사회 개발		
11주	교회의 자발적 배가 & 최전방 교회 개척		
12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		

*12주간 진행되는 선교의 기본훈련으로 선교한국이 주최하며 USCWM(미국세계선교센터)에서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퍼스펙티브스 집중훈련 215기

- ▶ 기 간: 2012년 2월 13일~18일(월~토)
- ▶ 장 소: 뉴욕총신교회 TEL. 718-359-0040
153-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 ▶ 등록비: \$200+\$50(책값)
- ▶ 문 의: 224-578-0561(김요한 선교사) / email: newyorkpssp@gmail.com
- ▶ 주 관: 선교한국 파트너스
- ▶ 주 최: GP, OMF, GAP, IMB, SEED
- ▶ 후 원: 뉴욕 뉴저지 교회협의회



시론

새해 결심을 수정할 때입니다!



원중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임진년 한 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이 시간이야말로 일년중 가장 희망적인 때이다. 추수와 결실의 압박감이나 반성과 회고의 성찰적 중압감은 없고, 가슴 벅찬 계획과 결심, 포부와 비전만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만나...

로 이어지려면 열두달이라는 긴 마라톤을 뛰어야한다. 남들 다 하는 것이니 나도 해보자는 가벼운 결심이었다면 모르지만 작은 열매라도 기대한다면 지금까지야말로 새해의 결심이나 계획을 진단하여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월이 가기 전에 신년 결심을 진단하고 수정하여 확정하라. 인간은 계획을 할뿐 아니라, 계획을 수정하며 사는 존재이다. 신년 베푸는 비장한 결심이 일년내내 실천 가능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연초의 계획은 분위기에 따라 지나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수정의 적기이다.

사람들은 잘 살아보고 잘 믿어보지도 못 막 먹다보니 힘에 지나도록 결심하기 쉽다.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 힘에 부쳐 실천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고, 수정하기보다는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결국 계획은 원대하였으나 심히 미약한 결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일월 중후순은 연초의 결심과 계획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수정하기에 좋은 때이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더욱 더 확고한 결심으로, 이미 포기상태면 수정 결심하여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일년내내 계획만 수정하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지만 결심과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일월이 가기 전에 한 번쯤 수정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이때에, 반드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일수록 수정하기를 권한다. 지난날 개념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오다보니 실천의지가 부족하고 또한 탐먹고 나서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때가 많다. 심지어 실천의 방법을 제시하는 노력까지도 이론으로 치닫는 때가 있다. 학문과 사고를 중시하던 선비 문화나 조직신학 우대 시대의 산물일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결심과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천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급년에 기도 많이 해야 하겠다는 결심보다는 지금까지 하던 시간에 10분씩을 더해야겠다는 결심, 성경 많이 읽어야겠다는 결심보다는 하루에 30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효과적이고 실천가능 할 뿐 아니라 축정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행을 촉진시켜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이 말이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제대로 정돈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변명이나 무기력함의 구실로 사용될 개념 또한 절대 아니다. 물론 우리의 목숨에서부터 일상의 작은 일 하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일상과 관련하여 부지런할 것과 질서와 정돈, 규모있는 삶을 원한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기획적이어서 한다. 인생의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하며, 일정한 단 기간의 목표를 설정하며 살아야 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내일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놓아다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해 들어서 벌써 결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결심과 계획 수정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예수그리스도의 노예... 절대 순종의 유일한 이유!

리더십저널, 존 맥아더 목사가 전하는 '불편한 진실' 크리스천의 정체성 보도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당신의 소원과 어울리는 능력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후원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구원자?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램프의 요청으로 전락해 버린 것

은 아닐까? 내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와 내 가정의 안위를 보장해 주고, 가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해주는 존재로 말이다.

그러나 존 맥아더 목사는 존엄하게 선포한다. 신약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친다. 성경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다. 그분은 소유주이며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됐으며, 값을 치르고 팔려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히 생소하다. 신약성경을 가볍게 읽어 나가도 그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존 맥아더는 그 이유가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하다"고 말한다. 즉 "킹제임스 번역본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들의 오역으로 '노예'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맥아더 목사는 이 '노예'라는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이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논지를 역사적 문헌적 증거를 들어 주도면밀하게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노예라는 단어는 '제자'를 가장 결정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



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었다.

영원하신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특권인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 경외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택해주신 사실에 영원히 감탄하게 될 것이다. 왕과 교제한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결국 성경은 말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주인 앞에 서서 우리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온다... 그러나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노예로서, 우리의 사명은 주인의 명령을 충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 자유와 복종 중 선택이 아닌 '악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택일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언급하는 것은 곧 그들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미였다. 사도 바울에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 순간 자기희생의 삶, 전적으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함했다.

또한 신자들은 노예라는 사실 자체로는 아무런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가족구성

원으로서 그분과 관련돼있다는 단순한 사실로 구별됐다.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받아 보는 독자들에게 자랑하

히 감당하며 언젠가 귀환하실 주인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 밖에는 없다.

Advertisement for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notice about the magazine's publication schedule.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봄학기: 2012년 2월 13일~5월 25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담임목사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가주노회 소속한 은혜와 평강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 격: 1)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2) 영주권, 시민권,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 3) 정규대학과 본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으로 본 교단(KAPC) 소속이거나 혹은 본 교단에 가입 할 수 있는분.

- 청빙서류: 1차 : 1)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자기소개서 3) 목회 계획서 2차 : 1차 심사 후 통보 받으신 분 1) 대학이상 학력증명서 각 1부 2) 안수증명서 1부 3) 추천서 2부 4) 가족관계증명서 5) 최근 6개월내 설교2회분 (CD 또는 DVD 동영상, 설교원고) 6) 사모자기소개서 3차 : 최종 후보결정시 본인 사모 건강진단서 (본 교회 부담)

제출기한: 2012년 1월 1일 ~ 1월 20일까지

접수방법: 우편 (주소 : 9140 Haskell Avenue, North Hills, CA 91343) e-mail (gracenpeacechurch@gmail.com/ e-mail 접수 선호)

- 기 타: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결과는 단계별로 e-mail로 통보해 드립니다. 3) 전화문의 사절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THE GRACE & PEACE CHURCH

2012년 중동평화 물꼬 헤즈볼라 항방에 달려

위클리 스탠다드, 이슬람극단주의 '헤즈볼라' 정체성 논란에 따른 균열조짐 보도

헤즈볼라(Hezbollah, 신의 당)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 시아파 이슬람 조직이자 합법적인 정당이다. 정식 명칭은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이다. 시아파이며 시리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시아파교도 수천 명에게 학교, 병원, 농업 운영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레바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아랍과 무슬림 세계의 저항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랍 국가 등 여러 나라 정부에서는 헤즈볼라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과 찬사가 엇갈리고 있다. 이스라

엘, 미국과 더불어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방 6개국에서는 헤즈볼라 전체 혹은 일부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들을 테러 단체로 단정 짓지는 않고 있으며 많은 아랍 국가에서 헤즈볼라는 저항 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클리 스탠다드(Weekly Standard)는 헤즈볼라의 정체성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한다(A Hezbollah Crack-up?: Lebanon's fratricidal extremists).

헤즈볼라는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당시 호메이니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한 시아파 민병대에서 출발하여 레바논 내전 당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지에서 저항 활동을 하였다.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은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군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조직하여 훈련을 받기도 했다.

1985년 헤즈볼라의 강령에는 세 가지 주요 목표로 레바논에서 "시민주의자를 물리치며", 레바논의 그리스도교도 우파 무장집단인 카테브 당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심판하며, 레바논에 이슬람 정권을 세우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헤즈볼라는 이슬람 국가장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으며, 종교간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헤즈볼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파괴를 주장하는 언설을 수차례 쏟아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땅 주인을 몰아내고 빼앗은 땅에 세운 시온주의 나라"라고 칭한다.

작은 민병대로 출발한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에 진출했으며, 라디오와 위성 텔레비전 방송국을 갖추고 사회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로 성장했다. 레바논의 시아



연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할 것을 보장했지만, 그해 8월 레바논의 새 내각은 만장일치로 헤즈볼라를 무장 단체로 인정하며 "점령지를 회복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안에 승인했다. 1992년 이래 헤즈볼라는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이 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점은 이슬람극단주의를 표방하는 헤즈볼라에게 치명적이다. 시아파의 지지가 없이는 가히 중동에서 입지가 불분명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외부적인 불안 요소보다 헤즈볼라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는 바로 내

외부적 불안요소보다 존립 위협요소는 내부적 문제 헤즈볼라 해체냐 강경노선으로 회귀인가 따라 결정

파 사람들은 헤즈볼라를 열렬히 지지하며, 이들은 2006년 레바논 전쟁 직후 레바논의 타종교 신자(순니파, 그리스도교도, 드루즈파)의 지지도 얻었으며, 시위에서 수십만 명이 끌어 모았다. 헤즈볼라와 여러 단체들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레바논 푸아드 시니오라 총리의 정부에 반대하여 시위운동을 개시하였다. 헤즈볼라가 주도하는 전사들이 시니오라에 충성하는 미래 운동 민병대를 물리치고 서부 베이루트 인근 지역을 점령했다가, 이 지역을 레바논 군대에 넘기기도 했다. 결국 도하 협정을 근거로 헤즈볼라는 레바논 의회에서 거부권을 얻었다. 또 레바논 연립정부가 구성돼, 헤즈볼라 출신 장관 한 명이 입각했으며, 의회내 30석 중 11석을 확보했다.

헤즈볼라는 이란과 시리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레바논과 여타 시아파 교도의 기부를 받고 있다. 레바논은 지난 몇 년 동안 군사력을 크게 증강했다. 2008년 6월 국제

끌고 있다.

그러나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은 최근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입지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후원자였던 시리아와 이란이 주춤거리면서, 지지 입장에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헤즈볼라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범죄율과 사회적 동요가 수직 상승하고 있을 정도로 이란이나 시리아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나 협조가 동결됐다.

여기에 CIA를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들의 헤즈볼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보 분석이 이루어져 헤즈볼라 단원들이나 중추 리더십의 소재나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도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이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게 만드는 요소이다.

시아파 성직자들 역시 헤즈볼라를 더 이상 레바논 이슬람 정권 창출의 동반자로 여

부이다. 즉 헤즈볼라 지도자들 중 여러 명이 헤즈볼라와 작별을 고하거나 강경노선이 아닌 중도노선으로 헤즈볼라의 노선을 선회할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적'인 이스라엘과의 우호노선으로 헤즈볼라 지도부가 돌아설 것을 기약하자마자, 시리아, 이란 그리고 시아파가 한꺼번에 등을 돌리고 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정당으로 입지를 장악하고 있는 점도 헤즈볼라의 정체성에 도전이 되고 있다. 극단 테러 단체에서 정치력을 가진 정당으로 레바논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어야 한다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테러와 같은 극단 정치 행위에 앞서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2012년 중동 평화의 물꼬는 바로 헤즈볼라의 해체, 아니면 다시 극단주의 이념으로의 회귀인가에 따라서 결정돼진다고 지구촌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깊어지는 빈부갈등... 2012대선 중대변수로 부상



(1면에서 계속)

그만큼 미국인 46%는 부자들이 때마침 제대로 된 사람을 알게 되거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부를 얻었다고 생각한 반면 다른 43%는 부자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야망을 품고, 교육을 통해 부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로 미국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절망감이 미국인들에게 팽배하게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뉴욕타임스는 최근 수년간 발표된 주요 논

의 논문을 보면 소득하위 10% 가정의 아이가 성년이 되어도 같은 수준에 있는 비율이 캐나다(16%)보다 미국(22%)이 높다.

상위 10% 가정의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같은 단계에 속하는 비율 역시 미국(22%)이 캐나다(18%)를 웃돌았다.

이처럼 미국에서 신분 상승이 어려운 것은 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빈곤층 자녀들이 처음부터 많이 뒤쳐진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일류대학들이 자교 출신 부모의 자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

전통적 지혜는 구시대 유물로 처리

문들을 인용, 미국에서의 경제적 지위 이동성이 다른 서방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퓨리서치의 설문 결과를 지원한다.

스웨덴대학교 마르쿠스 잔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수준 하위 5%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가 성년이 되고서도 여전히 같은 수준에 머무는 비율이 42%로 덴마크(25%)나 영국(30%)에 비해 높다.

하위 5%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상위 5%에 진입한 경우도 덴마크와 영국은 각각 14%와 12%인데 비해 미국은 8%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계급 이동이 힘든 것으로 알려진 유럽 국가보다 '기회의 땅' 미국에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오히려 심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의 경우 문화나 인구가 미국과 다르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해 모든 면에서 미국과 유사한 캐나다와의 비교 사례도 소개했다.

오타와대학의 마이클 코라크 교수

녀나 부유층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풍토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라크 교수는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집안의 배경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수진영은 그동안 빈부격차가 크다는 진보진영의 지적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 지위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들 논문을 보면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덜 평등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의 이동성마저 떨어지는 나라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지혜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Since 1976

로고스선교회

남가주 지/회/개/관

로고스선교회는 서부지역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남가주 지회를 아래와 같이 개관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선교회 남가주 지회 사무실 개관 기념예배

- 일 시: 2012년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설 교: 변영익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장 소: 3434 W. 6th Street,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 문 의: T. 213-384-3210 F. 213-384-3222

로고스선교회에서 하는 사역

크리스찬저널
THE KOREAN CHRISTIAN JOURNAL

문서선교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 ▶ 세계 선교의 교향지
- ▶ 공정한 선교 언론지
- ▶ 만민을 위한 전도지
- ▶ 크리스찬의 교인지
- ▶ 크리스찬의 대변지

www.kcj777.co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 한국에서도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MOU 체결)
- ▶ 일반 보험료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의사가 병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 ▶ 예수를 영접한 건강한 신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월부터 64세까지)
- ▶ 일반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며, 의료비 할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www.christianmutual.org

Logos House
RAMONA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기도과 찬양을 할 수 있으며 San Diego 지역에 있습니다.

www.logoshousearamona.org

로고스선교회
Logos Missions, Inc.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T. 773-777-7779 | TF. 888-777-8226
www.logosmissions.com

Logos Missions Inc. L.A. Office (로고스선교회 남가주 지회)
로고스선교회 대표 박도원 목사 / 남가주 지회장 크리스티나 정

협력단체: 대한보건산업진흥원, 대한기독교병원협회, 프라이임 솔루션, 한우리 여행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산 소망

요즘 세계는 경제 전문가들의 다각을 경제학자의 예측으로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2-4월에 이래리의 돌아올 만기 채권에 대한 염

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 만일 값지 못하게 되면 리만브라더스로 인한 고통 이상을 당하게 된다고 예고한다. 눈만 뜨면 온통 불길한 소

리들로 가득하여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세상이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하늘의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들은 어떤 의미로 볼 때 죽은 소망이요, 대부분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들이다. 모두 성공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성공했다 해도 그 기쁨은 얼마가지 못하고 익숙함으로 변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다. 그러나 산 소망은 차원이 다르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소망 자체가 역동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게 한다. 비록 그 소망 때문에 목 베임을 당

하는 정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고로 신자된자들마다 이런 산 소망에 더욱 골똘해져 되고 이 소망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여름 밀라노에 수련회 인도차 갔다가 아내와 함께 토리노(토리노)를 방문했다. 토리노는 그 유명한 알도 파들의 신앙의 본산지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옛 성도들이 산 소망 때문에 눈물겨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핏방의 현장이다. 교황청에서는 스페인의 군대를 보내 저들을 섬멸하게 했다. 그러자 알도파 사람들은 오로지 산 소망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길고 열악한 골짜기로 흘러들어왔다. 산세가 험하여 해발 4000미터 이상의 고봉들이 즐비되어있는 곳이다. 산이 높아 골이 깊고 눈이 한없이 많이 내리는 추운 곳이라서 지금도

겨울철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마을로 내려간다고 한다. 현재도 이렇게 열악한 곳이니 1200년경에는 얼마나 열악했을까? 그들은 막다른 골짜기의 입구를 막고 산 소망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무참히 살육했다. 그 결과 주민 만사천명 중에서 삼분지일이 죽임을 당해야 했다. 이런 핍박이 무려 600여 년 동안 반복되었다. 한번은 교황청의 지도자가 방문하여 사면하여주기로 했으나 주민은 다 모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제야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안도감으로 모이자 지도자는 본색을 드러냈다. 교황청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으나 이 제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대로 산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이었다. 당시 온 천지는 많은 눈이 쌓인 상태였다. 그

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같이 눈이 하얗게 덮인 산으로 올라갔다. 그 결과 저들은 태반이나 아사내지는 동사를 당해야 했다. 저들이 숨어들었던 바위틈의 음습한 굴들, 그런 와중에서도 리더를 키우기 위한 작은 신학교, 사방에서 구름떼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무리들을 위한 숙사, 이런 것들을 보노라면 숨이 턱턱 막혀온다. 그리고 산 소망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런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까지 산 소망의 신앙이 전해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산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위해 전전공공하는 것은 아닌가! 금전은 진정한 소망에 조정을 맞추는 신앙이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원해본다.

푸/른/초/장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더 강하고 깊어지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 복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신앙 때문에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한 분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을 누리라고 하십니까. 1절에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이미 화평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삶입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는 것이 명령하

왜 화해가 필요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로 죽음이 온 거예요. 죄라는 질병으로 온 것이 죽음이고 이 죽음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은 영의 죽음과 육의 죽

어떻게 해야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이 영접은 회개와 같이 가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고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는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6). 언젠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롬5:2). 여러분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무언가 추구하며 바쁘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절망입니다. 죽음이 끝나면 그 고난이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어느 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해와 모함 속에서도 요셉처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연한 고난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즐거움

롬 5:1-11

요셉을 보고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닮고 싶어 합니다. 요셉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전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힘든 길을 걸었던 사도바울의 인생을 보며 위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 엘리야 요셉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14:23).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샘처럼 솟아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부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의 죽음은 모든 평화를 깰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대속의 피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화해였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화해의 다리였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을 계속누리기 위해서 주안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 참된 평화가 끊임없는 이어지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삼니다. 그럼에도 참다운 만족, 기쁨, 행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달린 예수님 그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매일 매순간 불러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전부입니까?

고난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인내를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고 훈련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음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옴은 극심한 환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지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속에 부어졌습니다. 환난을 인내로 감당할 때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줍니다. 이 사랑을 흘러 넘쳐야 합니다. 퍼주어도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을 이웃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ATS 인준 셰퍼드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현안한 교육

현 이민국에서는 R-1(종교비자), H-1B(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격을 연방정부 학력 인준 학교 기준에만 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 MDiv 및 DMin 과정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 모집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입니다.

우안 마를로스 오르티스 박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성경 운동의 주체이자 20세기의 성경적 개혁신명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의 성장, 개혁신명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며, 그의 책 '개혁신명'이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연세 웨퍼드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의성장, 개혁신명 분야에서 개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적 전쟁과 내적 자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개혁신명은 '깊은 영성을 자유이기는 하나님',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이 한국어로 출판,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세 웨퍼드 신학대학에서 내적자유를 강의하고 있다.

에드 실보스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외곽으로 연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도, 선교 전문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맥 에이포드, 빌 브라이트 박사들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제자를 받고 있고, 그의 모델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파시 및 기업진계를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신명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전도", "사업의 기쁨부음", "변역"들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 ATS 인준(Candidacy)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미군 군복 장교 진출
- 정부 학비 보조 가능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On-Line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시스템
- 미 주요교단 안수가능
- 영어강의 / 통역강의
-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편리한 교통
- 이중언어 및 성적우수자 전액 장학금 지원

SHEPHERD UNIVERSITY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상담 및 입학문의
213-481-1313

교육칼럼

Teaching Method 개발
문화에 의한 접근 방법 1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세째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새해의 계획이 수립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변화가 없이 예전처럼 어른들의 잔치에 '곳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는' 교육부로 존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교회에 관하여는 변두리 인생 일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란 우리 자녀들의 의식 속에 내가 주인이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평생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킬 것이며 섬길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러는 다음 세대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무엇이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스포일(Spoil)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널널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과잉보호하는 것도 아니요, 물질적인 풍요를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길러진 아이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바르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방종이 된 아이들을 교회마저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는 자녀들이 있어 교육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과 우리가 다니던 시기의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별달라진 게 없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데... 교육사조도 문화적 환경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교회 는 전혀 변화와 상관없이 복음만 전 하면 된다고 고집하는지 모르겠습

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적응하는 문화적 환경을 설정한다는 것이 그들을 더 스포일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사망 속에 약을 삼입하면 달콤한 사망과 함께 약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문화라는 사망 속에 복음을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선교하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그들의 문화와 적응하는 환경을 설정하십시오. 이미 부모를 따라 교회학교에 출석하

문화선교란 그러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선교란 인간타락과 문화타락에 대하여 반응하는 두 가지 영역의 구속운동을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대상적 측면에서 사람은 구속하고 환경은 버려둔다면 구원의 대상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타락한 문화로 인하여 유혹과 타락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즉 문화도 함께 구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인터넷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world 안에서 살고 있는 세대들의 구속에 관한 주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실제의 생활에서 하루 24시간 중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순간 아주 쉽게 e-world에 들어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비즈니스도 각종의 예술 활동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람 사는 모든 일들이 현실과 똑같이 공존하고 있으며 무서운 범죄와 음란과 흉악한 모험과 살인까지도 현실과 함께 똑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e-world를 구속하는 것도 포함하여 회복된 문화 매체를 통해 복음

문화선교는 인간의 삶과 회복된 문화매체 통한 구속운동
계층적, 세대적, 문화적 땅끝 분별하고 새 선교활동 전개

요? 아마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교육에 현신하고 있는 교역자나 교사들은 왜 교회가 그 책임을 저야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 책임을 가정과 학교로 돌리고 맙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사는데 주일하루 그것도 단 한두 시간 밖에 머물러가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왜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말입니다. 만일 우리 이민교회마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미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인 교회는 대부분 주일학교가 없으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마저 교회를 다니지 않아 교육부가 존속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그래도 우리 한인인민 교회는 부모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

나. 실로 아이들이 숨 쉬고 살아갈 문화적 환경은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교육에 뒤처지 않는 전문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육자들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예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먼저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문화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오늘날 선교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빵이나 옷이나 신발로 선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함께 동화할 수 있어야 선교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선교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문화와 문화적 언어를 모르고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문화를 이

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숨 쉬고 살아갈 문화적 환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는 마치 옷과 같아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벗어 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불편한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묵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1:27, 28을 통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위임 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활동을 통해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문화는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선한 것만으로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문화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문화선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든 문화나 타락한 문화가 다음 세대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세대는 부모세대 대로 험담, 야담, 욕설, 저주 등 타락한 언어문화와 고스톱, 술, 음란, 놀음 등 타락한 오락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셀 수 없는 병든 문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든 문화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듯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문화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의 문제해결을 아이들에게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부모세대가 변해야 자녀들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우리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중직 몇 사람이 많이 많고 자기주장이 강하여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좋은 봉사인지요? 특히 조용히 봉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보는데 성경의 좋은 예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교회의 봉사 원리를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배우면서 일해야 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일해야 됩니다. 2) 더불어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같이 일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야 합니다. 3)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4) 조용히 일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봉사자가 귀한 것입니다. 5) 바리새 말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칭찬이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세계는 모두 제각기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19:1 말씀의 하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인데 이것은 "하늘 즉 일월성신과 같은 빛을 내는 천체가 있는 우주의 세계"를 말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이 속한 은하계 외에 이와 같은 은하계가 1천억 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모든

소리없이 봉사하는 자세 필요

하늘들과 거기 있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제각기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시19:2-3 말씀은 낮과 밤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오고 가면서 그들은 인간처럼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그 결과는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우주, 별들의 세계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일체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없이 자기들의 할 일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천체들과 공창은 소리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조그마한 평평어리에 살면서도 얼마나 요란스럽고 소리가 많습니까?

2. 이슬. 시133:3 말씀을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유대나라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인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은 동일하게 낮은 산인 시온산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차별없이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슬은 주로 새벽에 내리는데 별로 소리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일체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결과는 소생입니다. 이슬은 사막에서 다 죽어가는 풀이나 곡식도 소생시킵니다. 봉사자들은 모두 이슬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슬같이 소리없이 봉사하며 교회를 소생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슬은 성도들의 선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소리없이 다가가서 그들을 소생시켜 주어야 합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Komiyeol' (코미열) books. Includes a large title '코미열' in the center, a smaller title '코미열' on the left, and a portrait of Pastor Lee Kang-cheon on the right. Text describes the books' focus on church growth and mission. The bottom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Gonsan and Gwangju branches.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산한 편잡(The Diaspora Punjabi)



편잡인들 대부분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살고 있지만 큰 편잡 공동체가 있는 국가의 수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편잡어는 인도-유럽어로서 6개의 주요 방언으로 나뉘어지며, 기본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주요 지역에서 사용된다. 편잡인들 사이에는 다른 사회적 계급들과 직업적 하위집단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생활양식을 적절히 묘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편잡인의 현대 문화는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열로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이 분립으로 말미암아 무슬림과 힌두교도, 시크교도들을 분리시키는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했

30개국에 이른다. 편잡인들이 처한 생활환경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들은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편잡인"이라는 이름은 편잡어를 사용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편잡

다("시크교"는 이슬람과 힌두교가 결합된 종교). 새 정부의 편입 정책 역시 편잡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삶의 모습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엄격한 사회계급 체제이다. 편잡인들은 "자티"(jati)라고 하는 카스트로 구분된다. 편잡인들에게 카스트는 한 지역에서 공통 조상을 둔 가족집단을 의미한다. 그들은 같은 카스트 안에서 결혼할 수 있으며, 공동 형태의 토지 유산에 기반을 둔 공통의 전통적 직업을 가지고 있다. 카스트의 분류는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브라만(Brahmans, 사제와 학자, 지주, 숙련 장인)의 상층 카스트에서부터 노동자와 노예의 최하층의 카스트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다양한 장인

카스트에는 목수, 석공, 대장장이, 이발사, 방직공 등 숙련된 직업들이 있다. 자티는 씨족, 촌락, 가족으로 더 나뉘어질 수 있다. 인도에서도 이슬람과 시크교에서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완전히 종교에 의해 받쳐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산한 편잡인들 대부분은 힌두교도이며, 최상층의 카스트에 속하고 대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 편잡인 이민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터번을 머리에 둘 줄 모르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시크교도들은 대부분 기계공, 건설, 사업 전문직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편잡인들은 소매와 무역, 특히 소규모 가족사업을 통해 일하고 있다. 편잡인의 전통문화에서, 남자들은 토지와 가계, 기타 사업 자산 등 가족 재산을 돌볼 책임이 있다. 여자들은 집안일을 맡아서, 요리, 자녀 교육, 가계 관리, 가족 기르는 일 등을 한다. 무슬림이든 힌두교도든 또는 시크교도든 상관없이, 결혼은 모든 편잡인들이 바라는 것이다. 편잡인들은 전통적으로,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시부모 근처의 남편 마을에서 살지만 대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곳 에다 신혼집을 차린다. 결혼은 아직도 많은 경우에 부모의 중매로 이루어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편잡어로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은 많이 있지만 극소수만이 복음을 들었다. 탄자니아와 케냐 등 심지어 기독교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도 편잡인들은 아직도 기독교인이 1%도 채 안된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 다른 나라에서는 편잡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 체도 없다.

신앙
이산한 편잡인들은 고향의 3가지 주요 종교인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산한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프리카 기독교인 100년 새 54% 급증

세계 기독교인구가 21억8천만 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는 지난 100년 사이 9%에서 63%로 엄청난 증가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연구 단체 퓨포럼(Pew Forum)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기독교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sub-Saharan)의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기독교인 비율은 큰 변동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퓨포럼은 세계 69억의 인구 중 약 1/3인 21억8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며, 세계 기독교인의 37%만이 서구에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기독교 공동체는 지난 1910년 세계 기독교인의 2/3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약 천년 동안 유럽 대륙에서 최대 종교 단계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럽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10년 9%에서 2010년 63%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독교인 비율은 3%에서 7%로 상승할 뿐이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바로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식은 지난 19일 LA타임즈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선교연구원은 "기독교인 비율이 줄어 들고 있는 유럽과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낮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다시 기독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 속도 미국의 4배, 중국의 20배

인터넷 속도로는 한국이 최고라는 얘기가 어제 오

늘의 얘기는 아니다. 최근 스웨덴의 웹 측정 업체인 핑덤(pingdom.com)이 세계 50개 국가의 인터넷 평균 속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다시 한 번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임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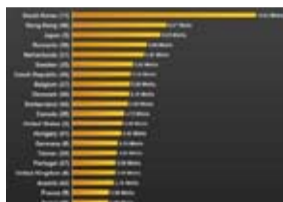
핑덤에 따르면 한국은 1초에 16.63메가비트(Mbit)의 속도를 기록해 2위 홍콩과 두 배 가까운 속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 3위는 8.03메가비트를 기록한 일본. 특히 이번 인터넷 속도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위부터 3위까지가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주도적으로 IT분야에 집중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국도 4.6 메가비트로 한국의 4분의 1속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에서 3위까지를 제외한 10위권의 나머지들은 모두 유럽이었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인터넷 접속 속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이란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속도에서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중국이 올 새해부터 인터넷 접속속도는 높이고 접속비용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 공업과 정보화 부에서 지난 달 밝힌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인터넷접속속도는 뛰어나고 비용도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2012년에는 민생 혜택과 가격인하를 목표로 인터넷 환경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는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도시가정의 인터넷 접속속도를 초당 20 메가비트로 높이고 농촌 가정도 초당 4메가비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NIV최신판, 동성에 '죄' 로 더 확실히 번역

한국 목회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 최신판(2011)이 예전 버전(1984)보다 동성에 행위를 한층 강력하게 죄로 표현하고 있다고 NIV 성경을 제작한 성경번역위원회(The Committee on Bible Translation) 위원장 더글라스 무(Moo) 박사가 밝혔



다. **히틀칼리지 교수인 무 박사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둘러싸고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관련 성경 본문과 어휘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상당히 일깨웠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또 이러한 관심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신 NIV는 동성애를 '죄'라고 강력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몇 가지 예를 들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 1984년에 개정출간된 NIV는 이 구절에서 'homosexual offenders'(동성애를 범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신판에서는 'men who have sex with men'(남자와 성관계 하는 남자)라고 바뀌었다. 무 박사는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남성동성애행위에 있어서 각각 소극적이고(passive) 적극적인(active) 참여자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1984년 번역은 동성애가 그 자체로 정죄되는 것인지 또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불쾌한'(offensive) 동성애행위만 정죄되는지가 불분명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NIV는 (고전6:9)의 그리스어 단어가 모든 종류의 동성애행위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다. 또 핵심적인 그리스어 단어가 남성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무 박사는 로마서 1장 26-27절과 레위기 18장 22절 역시 학문적 연구 결과와 해당 구절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에 따라 변화를 주어 번역했다고 밝혔다. 로마서 1장 26절의 구절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은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sexu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로 바뀌었다. '자연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natural relations'에 'sexual'(성적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자연적인 성관계를 비자연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해석되게 함으로써, 해당 구절이 '여성 동성애 행위'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또 레위기 18장 22절의 구절 'Do not lie with a man as one lies with a woman'(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Do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man as one does with a woman'로 바뀌었다. '성관계'(sexual relations)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남성 동성애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NIV성경은 북미 지역 전체 성경 가운데 30%를 점유하고 있다. 1978년에 첫 발간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30억부 이상 팔렸다.

한국내 탈북자 2만3천명 넘어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매년 2천명에서 3천명 사이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규모가 2만3천명 선을 넘어섰다고 통일부가 공식 발표했다.

통일부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만3천100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모두 2천7백37명이라고 밝힌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는 2010년 2,379명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이고, 2009년 2,927명 대비 6%가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입국자 가운데 여성은 7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탈북자의 연령은 30대가 32%, 20대가 27%로 다수를 차지했고,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70%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이 50%, 노동자 38% 순이었다. 탈북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29%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7%, 인천 9% 순으로 나타났다.

무슬림에게 복음 알려야

한 이슬람권 선교사가 최근 유럽 내 무슬림인구 증가를 언급하며 이슬람권 선교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이슬람권을 향한 몇몇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달리 서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목과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다. 현재 전 세계 선교사의 2%, 한국선교사의 4%만이 무슬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슬람권에는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 본적이 없는 지역도 있을 정도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그 자체에서 이유를 찾는다. 무슬림들의 개종을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이유를 찾기도 하고 타종교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인 종교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명령의 대상으로 무슬림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려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다.

www.onnurisj.org

사역자 청빙

산호세온누리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역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대상: 부목사(한어부) 전일사역자, 초등부(3학년 ~ 5학년) 파트사역자 청빙

부목사 자격:
-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 (M. Div 학위)
- 서류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영주권자 신분)
- 목회 경험, 자치훈련 및 목회 전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

초등부 파트사역자 자격:
- 정규 신학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자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 자기 소개서(목회 소명 간증 포함)
- 신학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부목사)
- 직전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필수) 외 1명의 추천서(부목사 지원자는 2명의 추천서)
- 설교 CD 혹은 컴퓨터파일

제출처 Rev. Young Rhyon Kim
Omnuri Church of San Jose
890 Meridian Way, San Jose, CA 95126
이메일 주소: onnuradmin@gmail.com(이메일접수가능)
교회 홈페이지: www.onnurisj.org
전화: (408) 971-2353

제출 기한: 철봉시까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산호세 온누리 교회
Omnuri Church of San Jose
담임목사 김 영 언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사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영 어:	_____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의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E-mail: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net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
발송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 개국 9 개 방송국
전국 1, 2, 3, 4 개 방송국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5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특별기고

전호진 박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



캄보디아의 이슬람화 운동을 분석한다

불교가 국교인 캄보디아는 지금 불교, 이슬람, 기독교, 및 이단들 간의 선교경쟁이 치열하다. 유다서에 사탄과 천사 가브리엘이 모세의 시체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이들 종교는 캄보디아의 한 영혼을 더 차지하려고 뜨겁게 경쟁하고 있다. 일부 선교사들은 이 나라에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더 무섭게 확장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결코 기우가 아니다. 약50만의 짬족들은 대부분 무슬림인데, 지금까지는 비교적 명목상 무슬림이었던 이들이 공격적 무슬림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

직체는 주로 파키스탄에 거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조직체가 영어로 Inter Services Intelligence라는 조직체이며 동시에 알카에다 및 범아랍권 무슬림 세력들이다.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은 동남아를 이슬람화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웠다. 동남아시아는 힌두교 국가 혹은 불교국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비교적 관용적이며 세속주의가 강하다. 동시에 다른 종교와 문화 및 언어를 잘 포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와 수하르토가 이슬람 급진세력을 억제했다.

명목상 무슬림이 공격적 무슬림으로 전환 짬족 대상 해외교육...모스크, 학교건축도

이다. 아래 글은 2010년 8월 27일 멜로이 크리슈나 나 다르(Maloy Krishna Dhar)라는 이슬람 전문가가 쓴 '동남아의 이슬람화'라는 글을 요약한 것이다. 멜로이에 의하면 이슬람은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 이후 동남아를 이슬람화 하려고 한다는 장문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캄보디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슬람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인 마우라나 카파예 알리는 동남아를 하나로 묶는 이슬람 공화국을 계획했다. 동남아란 태국 남부지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부, 브루나이 제도, 캄보디아 남부지역을 포함한다. 성전주의자들(Jihadists)은 전도(Dawa)와 무장투쟁을 통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이란 혁명이후 이미 동남아를 예의 주시했다는 것이다. 동남아에서 이 운동을 수출하는 이슬람 조

동남아시아에 이슬람을 전파한 것은 무슬림 상인들이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이슬람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토착종교와 많이 혼합되는 경향이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과는 많이 다르다. 캄보디아도 짬족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전파됐지만 짬족의 이슬람은 아라비아의 이슬람과 많이 차이가 난다.

동남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전략

그래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캄보디아 무슬림들로 하여금 전통문화나 토착종교의 옷을 벗어버릴 것을 강요한다. 수년전에는 알카에다 및 ISI는 이미 무슬림 인구가 충분히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테러리즘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 테러가 동남아로 확산되고 있다. 테러 양성소는 주로 파키스탄, 아라비아, 이집트, 예멘, 리비아에 있었다. 특히 파키스탄이 테러 양성소로서 국제사회에서 부각

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이슬람화 전략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캄보디아 남부 짬족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범이슬람 중심지를 세우고자 한다. 800년 전만해도 짬족은 베트남 남부에서 짜파왕국이라는 독립국이었고 힌두교가 거의 국교였다. 이 왕국은 크메르제국과 많은 전쟁을 했다. 11월 물 축제는 크메르 제국이 짜파 왕국과의 해상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짜파 왕국이 베트남에게 망하면서 짬족들 상당수는 캄보디아로 이주했는데, 이들은 아라비아 상인들과 접촉하면서 힌두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이들은 본래 아리안 인종이라고 하고 다른 학자들은 말레이시아, 폴리네시아, 중국 및 인도인의 혼합족이라고도 말한다. 폴포트 정권 때 짬족 무슬림들은 완강하게 저항해 많은 희생자를 냈었다. 론볼 정권에도 저항했다. 특이한 사실은 폴포트 부하인 르 카심은 짬족으로 Fulro Champa라는 저항조직을 결성해 엄청난 보복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파키스탄의 와하비주의(이슬람원리주의의 단체)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그 결과 150개 이상의 모스크와 35개의 이슬람 고등교육기관이 세워졌다. 그리고 파키스탄 및 사우디에서 온 종교지도자들은 짬족을 방문, 이슬람 교육을 시킨다. 매년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사우디 및 파키스탄으로 보내져 이슬람 교육을 받는다.

특히 일부 아랍 국가들과 파키스탄 및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NGO들은 매년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 공공기관, 모스크, 마드라스(이슬람학교)를 건축하고 있다. 주 모금기관은 사마쿰 이슬람 캄푸차(Samakum Islam Kampuchea)이며 제다의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이샤크 빈 나시르, 무함마드 카심과 같은 두바이 아랍인들이 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다과 타브리(Dakwa Tabligh)라는 이슬람 전도단체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다. 이 단체가 가르치는 내용은 코란, 샤리아(이슬람 율법) 및 하디스(전통)이다(작년 11월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금요일 주캄보디아 미국대사관은 짬족 무슬림지도자 200명을 초청 만찬회를 베풀었다. 목적은 짬족 무슬림 공동체에 제발 이슬람테러리스트들을 숨기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역자 주).

투고 시

최장 여행가 예수

조의호 목사(시인·뉴욕성화교회)



12월 초순에
반달이 오동나무에 앉아
노래하니 뉴욕을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치 않겠네'
천군천사들도 노래하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암스트롱과 소수의 월인(月人)들
발도 아니 삼하고
몸에 소수점 하나 없었네

성경인물 중에 승천한 사람
에녹 엘리야 외에
제일 먼 달 여행자들이지
하늘 아버지 나라에서 지구촌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마굿간까지
날개도 없이 인공위성도 없이
하늘 아버지 나라로 또 다시
왕래하신 주 예수
천국행 항로를 열어주시 주

주여 인도하소서 내 길을
나는 길 잃은 어린양이오니
나는 천국 순례자이오니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핑몰

▶ 5만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 **매주 2회 항공 직수입**
▶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
▶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 Site에 올려있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매 드림.
E-mail : gospelmal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최저목록 보내주세요.
▶ 사용자 질문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1.800.404.1171**

교회도서부 설치전문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2012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시거드립니다

2012년 미주판 다이어리 지금 주문하세요

다이어리 맞춤제작 + 최저가가격 보장

다양한 디자인과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쿼란(대) 쿼란(중) 멘토링 하이움 아가페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호 보완적인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Product
2300 ANSI LUMENS 2000:1
2600 ANSI LUMENS 2200:1
3000 ANSI LUMENS 2000:1
3300 ANSI LUMENS 600:1
5200 ANSI LUMENS 1200:1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어플리케이션과 수전, 힙, 평판, 현종의 교회건축물 전문업체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꼭 바뀌고 달라진 기법

- 선명하고 밝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정할 스탠드
- USB 호스트 가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천양반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이중통역기

개역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단체 구입시 한국 특가 세입합니다. 바이어 애플릿(옵션부)

아래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다니얼 전자성경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견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애드민 서비스
- 좋은 화질과 계층,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웹캠/영상/포럼링/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개원

멜라성구사
에이어드수정판인
KING CRISTAL PULPIT
LED LAMP에 설치된 빛나는
정교한 빛의 아름다움
다양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가격 보장
최저가가격 보장
최저가가격 보장
최저가가격 보장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목사, 풀업가운, 성가대
연금워런, 드레스·경쟁양복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447-4011
--	--	--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72. 처음이 좋았다(2)- 맨 처음 좋았던 것

빅뱅을 믿는 크리스천이 마시기 어려운 쓴 잔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첫 구절부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북한 것이다. 빅뱅 이론은 별이 먼저 스스로 형성되고 나중에 행성이 스스로 형성되었다고 하거나 거의 동시에 스스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구가 창조 첫째 날 창조되었고 태양은 창조 4일째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빅뱅과 반대다. 그러므로 빅뱅론자들에게 성경적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역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책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 있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성경의 사실 여부는 자기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결정이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도 끝도 없는 선언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맨 처음 창조 행위가 태초라는 시간과 하늘이라는 공간과 지구라는 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각각 시간 길이 무게로 측정되는 완전히 독립적인 요소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에서 물질만 빼낼 수 없다. 그리고 물질은 언제나 시공간 속에 들어 있어 시간-공간-물질은 각각 완전하지만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로마서 1:20) 시간-공간-물질을 과학자들은 연합체(continuum)라고 부른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지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태양이나 우주에 수많은 은하들과 그 속에 있는 커다란

별들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서도 태양계의 질량 중 1%도 안 되는 지구를, 그리고 우주에서는 표시도 할 수 없이 작은 지구를 우주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 그 대답이 어렵든 간에 가장 먼저 창조된 물질이라는 면에서 지구는 이 우주에

가장 특별한 행성이 되었다. 그러나 지구는 물질적으로 가장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바로 창조자의 형상이 살 곳이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생명체를 가진 유일한 행성인 별 아니라 창조자의 자녀들이 살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위해 지구를 맨 먼저 창조하시고 6일간 자기 형상을 위해 지구를 꾸며 가신다. 이 과정을 완벽하게 마친 다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과정을 마치셨다고 선언하셨다. 이 내

이 어닐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무지개 색깔의 가시광선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우주선, 극초단파, 라디오파 등 모든 종류의 빛을 발명하신 것이고 첫째 날 창조된 해나 별들은 이 빛들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것이다.

지구 같은 것도 빛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다양한 빛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태양은 빛 자체가 아니고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핵융합이 여기서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빛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이 계속 빛을 내려면 계속해서 핵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큰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면 불씨가 필요하듯이 맨 처음에 소량의 수소가 융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수소 분자들은 스스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핵융합이 되어 나오는 방사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수소 원자들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엄청나게 때

창조자의 형상이 살 곳 지구를 맨 먼저 창조 빛이 먼저 창조돼 태양의 핵융합 이루게 해



Spot-light 받고 있는 지구
창조 된 빛은 지구를 드러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에 두 수소 원자를 붙여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밀어내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강제로 서로 달라붙게 해서 한 원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강력한 빛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기능을 가진 태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보다 먼저 빛이 존재해야 논리적인 순서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 에너지를 사용하여 태양이 계속해서 빛을 생산하도록 핵융합을 시작하셨을 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기뻐하셨던 창조물인 빛은 가장 소중한 창조물 중 하나인 지구를 비추 하나님 기뻐이 되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을 위하여 빛을 보내 주셨다.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셨다. 그 주님은 이렇게 선언 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 5:14). (다음호에 계속)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축복과 저주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1:1).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는 아무리 뿌리를 파내어 잘라내도 잠시 후 돌아보면 노랗게 꽃피는 잡초 민들레와 같이 죄는 아무리 잘라내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듯 포기하고 여전히 죄에 저 넘어감을 합리화합니다. 하나 시편기자는 단호히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며 복도 저주도 다 내 몫임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결과는 좋아하지만 그 결과를 가져올 과정은 당연히 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쉬운 길을 택합니다. 막상 쓴 열매가 맺히면 원망으로 빠지는 병든 마음을 끼고 삽니다. 하나 “아차 잘못 들어섰네.” 비록 막 달려가던 길일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다. 잘못된 길에서 멈추어 서서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비가 왼쪽 오른쪽 지시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비록 중간에 길을 잃었다 해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잘못 선택해서 악인의 꾀를 좇으며 죄인의 길에서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교만한 삶을 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비참을 받고 완전히 고립된 듯한 저주의 상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허무를 절감한 영혼이 파산한 바로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오직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인생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베풀어 주신 은택을 계속 되새김질 하듯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결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체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서서히 영혼 깊숙이 십자가의 은혜가 녹아 들어가며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 존재에 스며들어 점차 안정을 찾게 되어갑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잘되어 자신이 변화하니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니 입을 열면 감사와 축복이 흘러 나옵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니 더 이상 악한 양심이 이웃을 종종 고소하더라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웃을 품는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이리저리 주위에 걸고맙던 관계들의 벽들이 점점 허물어져 내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하나님이 감동하신 듯 막힌 듯 답답했던 상황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턱으로 돌리며 목에 힘이 들어 갈만합니다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잔치상을 마련하시고 상주시는 것이라고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울 일말의 여지가 없는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칭찬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며 길입니다.

결코 축복의 길과 망하는 악인의 저주의 길이 정해진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짊어 못하도록 운명 지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 형통이 보장된 축복의 길이란 망하는 저주의 길이란 그 결과는 각자가 선택하는 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축복도 저주도 결국은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기를 너무도 소원합니다. 하면 고지시하게 한 마음은 축복의 길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육이나? 영이나? 내 생각대로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갑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봉철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 오후 7:00 수요 기도회 : 오후 7:30 새가족회 : 오후 8:00 (월-토)</p>	<p>남부인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성 주일 1부 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6:00 새가족회 : 오후 8:00 수요기도회 : 오후 11:00</p>	<p>덴버인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 1부 예배 :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7:00 일요일 기도회 : 오후 7:00</p>	<p>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 오후 8:00 월요일 새벽기도회 : 오전 8:00</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봉준 주일 1부 예배 : 오전 8:00(복합) 주일 2부 예배 : 오전 9:15 수요 예배 : 오전 11:00(복합) 수요 기도회 : 오후 8:00 새가족회 : 오후 8:00</p>	<p>맨얼 교회 담임목사 : 권용대 주일 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 오전 9:15 수요 예배 : 오전 11:00 새가족회 : 오후 8:00 새가족회 : 오후 8:00 새가족회 : 오후 9:00</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병혁 주일 1부 예배 :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전 8:00 새가족회 : 오전 11:00 새가족회 : 오전 11:30 새가족회 : 오후 1:30 새가족회 : 오후 7:00 새가족회 : 오후 7:30 새가족회 : 오후 9:00</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 오후 12:30</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김경환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 오후 7:00 금요일 예배 : 오후 8:00</p>	<p>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30 수요 기도회 : 오후 8:00 새가족회 : 오후 9:00(월-토)</p>	<p>주에 수 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주일 1부 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6:00 수요 기도회 : 오후 8:00 목회 상담 : 시 8:00</p>	<p>큰누리교회 담임목사 :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30 수요 기도회 : 오후 8:00 새가족회 : 오후 9:00 www.kbnurichurch.org www.kbnurichurch.com</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수요 기도회 : 오후 8:00 새가족회 : 오전 11:00(월-토) 수요 기도회 : 오후 7:00</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30 수요 기도회 : 오후 11:00(월-토) 수요 기도회 : 오후 7:00(월-토)</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수명 1부 예배 : 오전 8:30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수요 기도회 : 오후 7:00 일요일 새벽기도회 : 오후 7:00 새가족회 : 오후 9:00(월-토)</p>	<p>템파라교회 담임목사 :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수요 기도회 : 오후 12:10 수요 2부 예배 : 오후 7:00(월-토) 새가족회 : 오후 7:30(월-토) www.temparachurch.com Tel: (480) 725-0191, Fax: (480) 567-3957 1160 S. Debon Rd, Chandler, AZ 85286</p>
<p>하와이 지역 담임목사 : 김현만 주일 1부 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30 수요 기도회 : 오후 8:00 새가족회 : 오후 9:00(월-토) www.hawaii.org Tel: (808) 842-4738 Fax: (808) 847-6696 306 Chapel Road, Honolulu, HI 96806</p>	<p>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30 수요 예배 : 오후 7:30 수요 기도회 : 오후 8:00 새가족회 : 오후 9:00 www.aggapechurch.com Tel: (908) 726-9811 1835-A Pardo Ave., Monroeville, PA 1513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수요 기도회 : 오후 8:00 www.edenchurch.org Tel: (202) 739-7004, Cell: (202) 629-4962 302 E. Bethesda Rd, Bethesda, MD 20814</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 김순관 주일 1부 예배 :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30 수요 기도회 : 오후 8:00(월-토)</p>	<p>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주일 1부 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수요 기도회 : 오후 7:00 www.honolulu.org Tel: (808) 947-6252, Fax: (808) 947-6167 www.honolulu.org 222 Melrose St., Honolulu, HI 96822</p>			

미주한인의날 109주년 감사예배 및 조찬예배

LA=나성순복음교회, OC=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

미주한인 이민109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각각 개최됐다. 지난 11일 오후7시30분에는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 그리고 미주한인재단이 공동주최한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가 열렸다. 예배는 남가주교협 수석 부회장 진유철 목사가 사회를, 황혜경 교수가 미국국가와 애국가 독창을, 차기 LA지역 미주한인의날 대회장 빈센트킴 변호사가 개회사를 했다.



(사진위)미주한인인인 109주년 2012미주한인의 날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변영익 목사(좌)와 축사를 하고 있는 김영대 목사(우) (사진아래)2012 미주한인의날 기념 감사 조찬기도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갖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어서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가 환영사를 했으며 하기인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직전 회장)가 기도를 했다. 이어 정종일 목사(남가주교협 서기)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

휘 전종재 교수, 반주 박혜련 선생)이 특별찬양을,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협 회장)가 '나라사랑하는 마음'(예4:14-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영대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축사를, 정시우 목사(미주한인재단 이사장)가 격려사를 했다. 또한 이날 교협부회장들의 인도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장현 목사가 '조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정요한 목사가 '미주한인교계와 동포사회를 위해', 엄규서 목사가 '한국과 미국, 세계의 경제회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한편 14일 오전 8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는 2012 미주한인의날 기념 감사 조찬기도회를 OC교협과 미주한인재단USA 공동주최로 가졌다. 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조찬예배는 신낙

균 대회장이 개회사를, 이영진 목사가 애국가를, 다니엘택 씨가 미국 국가를 불렀다. 이어 박용덕 목사(OC교협 중경회장)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이춘덕 목사(OC교협서기)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날 고석찬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선인)가 '온 땅을 적시는 민족으로'(창2:10-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박상원 장로가 환영사를, 송정명 목사(미기총 대표회장)와 강석희 열반인 시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기도콘서트를 열어 민경엽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오아론 목사(OC교협 신학박과위원장)가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경제회복을 위해', 오상철 목사(OC교협 이민목회위원장)가 '이북의 체제안정과 통일한국을 위해', 로버트전 목사(OC교협 차세대분과위원장)가 '차세대 정체성 회복과 신앙계승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축도는 윤성원 목사(OC교협 이사장)가 했다.

(박준호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2대 회장단 및 29대 이사장단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32대 OC전도연합회 손찬우 회장 유임 29대 이사장단 취임예배도 함께... "최선 다하겠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OCKCA 회장 손찬우 집사)는 제32대 회장단과 29대 이사장단 취임예배를 15일 오후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취임예배에서 32대 회장으로서 연임된 손찬우 집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장직을 맡게 됐다.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32대 OCKCA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OCKCA 홍보부장인 서소희 G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1부 예배는 27대 회장 서양훈 장로가 기도 했으며 엄영민 목사(OC교협회장)가 '섭기는 자의 기쁨'(히 6:10-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포이애마 합창단이 특송이 있

었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취임 이사장 인사 및 임원소개, 32대 회장 손찬우 집사가 인사말 및 임원소개를 했으며 취임 이사장과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소희 홍보부장이 축사를 불렀으며 올해도 회장직을 맡게 됐다. 신중은 목사(OC목사회 회장), 박용덕 목사(OC교협 직전회장)가 축사를, OCKCA 초대 회장 양문국 목사가 권면을 했으며 엄영민 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제32대 OCKCA는 2012년 3월과 8월 청년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크리스천 연예인을 초청,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그리스도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여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박성종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제28차 '그리스도 안에' 목회자세미나 갈보리미션월드 박성종 목사 강사, 은혜승리교회서

갈보리미션월드(대표 박성종 목사)는 제28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여는 목회자 세미나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16일부터 18일까지 은혜승리교회(담임 김철수 목사)에서 열었다. 생명빛교회 담임이자 갈보리미션월드의 대표인 박성종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의 첫날 강사는 '성경이 말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진행됐다. 박성종 목사는 "창세기 1장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하늘이라는 생명의 공간과 땅이라는 사랑의 공간을 만드신 것"이라 설명했다. 박 목사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 첫째는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둘째는 하나님아래 거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던 자들이다. 셋째는 하나님아래 거하는 자들 중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령 안에 거하며 장성한 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마귀에 거한 자들을 하나님아래 거하는 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아래 거하지만 아무런 영향력 없이 지내는 자들을 장성한 자로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아들의 영광의 도구', '후사가 누구인가?', '육으로 이르는 인생', '부활의 길', '하나님의 혈통', '침노하여야 할 천국' 등의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한편 박성종 목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은혜승리교회에서 신년 축복성회를 가졌으며 1월 20일부터 22일(주)까지 테메플라갈보리교회에서도 성회를 갖는다. (박준호 기자)



아이티 미라클 합창단의 공연이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넓은 세상 보며 자존감 키운다 아이티 미라클합창단 미주 순회공연

지난 2010년 최악의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의 어린이 합창단을 LA로 초청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고 있다. 이번엔 참가하는 아이티 미라클 합창단은 합창단원과 백상숙 선교사를 비롯한 스태프 등 22명이 남가주와 플로리다를 방문. 13일 저녁 세계아가페선교교회를 시작으로 열반인메텔한인교회와 LA사랑의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등에서 콘서트를 갖게 된다. 또한 16일 마틴루터교회 페레이드에 참가하였으며 디즈니랜드, LA 시의회, LA폴리스아카데미, 갑슨시 등을 방문했다. 본 합창단은 오

는 21일 플로리다로 자리를 옮겨 코랄리치한인장로교회, 남부 플로리다연합감리교회 등에서 콘서트를 갖게 되며 23일 아이티로 돌아가게 된다. 세계문화포스츠택재단의 전통석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는 아이티미라클 합창단의 미주방문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지진으로 인해 폐허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미국이라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과 이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리빙스톤의료선교회 후원 연주회

리빙스톤의료선교회(대표 박경일) 후원을 위한 연주회가 1월 15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주의 나라를 꿈꾸는 연주회'를 주제로 열린 연주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 곡으로 막을 열었으며 데이비트 전도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맡겨 영광을 돌리는 밤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본 연주회는 찬양과 함께 서기향의 오르간 연주를 비롯하여, 트럼펫, 피아노 등의 감미로운 연주가 참석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 넣어주었다. 비영리 무료 진료소인 리빙스톤CDC는http://www.livingstonecdc.com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이성자 기자)

삶과 복음 함께 가는 총체적 선교 미주인터서브 주최 비즈니스미션 세미나

미주인터서브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미션'(Business As Mission) 세미나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조 샘 선교사가 '선교와 비즈니스', 광동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의 창업사례', 엄기영 목사가 '미래의 미션', '목회', '비즈니스', 자슈아박 대표가 'LA에서의 BAM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해 강의했다. 조 샘 선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매일 만나게 되는 것은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자들에게는 특권"이라고 말하며 "비즈니스 미션은 삶

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하는 총체적인 선교"라고 설명했다. 그는 "BAM은 비교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타깃으로 삼는다. 선교는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며 특정한 인과 특정한 제만이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원 선교사는 러시아 연해주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한 선교에 대해 설명하고 선교사가 되기 전 바라보던 선교와, 선교사가 돼 현지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한 선교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미주인터서브의 비즈니스미션 세미나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삶과 복음 함께 가는 총체적 선교 미주인터서브 주최 비즈니스미션 세미나

미주인터서브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미션'(Business As Mission) 세미나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조 샘 선교사가 '선교와 비즈니스', 광동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의 창업사례', 엄기영 목사가 '미래의 미션', '목회', '비즈니스', 자슈아박 대표가 'LA에서의 BAM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해 강의했다. 조 샘 선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매일 만나게 되는 것은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자들에게는 특권"이라고 말하며 "비즈니스 미션은 삶

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하는 총체적인 선교"라고 설명했다. 그는 "BAM은 비교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타깃으로 삼는다. 선교는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며 특정한 인과 특정한 제만이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원 선교사는 러시아 연해주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한 선교에 대해 설명하고 선교사가 되기 전 바라보던 선교와, 선교사가 돼 현지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한 선교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리빙스톤선교회 후원 음악회에서 오프닝 찬양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방
2001 W. Olympic Blvd., #180 Los Angeles, CA 90009
TEL: 818.992.4698 Fax: 818.992-5554
www.lifebook.co.kr
www.worlfbk.com
로앤앤 컴퓨터 지사 |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 TEL: 800.228.2928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성)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장악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arthlink.net
TEL: (214) 798-2820 FAX: (214) 798-282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리셉션사
아로마센타6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일!”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 소	
전 화	팩스:
이메일	@
기 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부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5,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사중용 복사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컬러슈
판매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SAM CARE 의료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세기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usa@samcare.org
eccho@samcare.org
Tel. (213) 381-1347
2140 W. Olympic Blvd, #207, Los Angeles, CA 90006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의 후원
기후변화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동부교계 기사판

east

제 17기 목회와 선교 위한 컴퓨터강좌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과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공동주관하는 제 17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강좌가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프라미스코리아(담임 김남수 목사) 8층에서 열린다. 음악, 사진, 비디오 촬영/편집 등의 주제로 한 클래스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없으며 등록비는 40달러. 점심제공. 4회 개근자에게는 전액 환불한다.

▲문의: (347)827-0024

뉴욕평화교회 플러싱선교관 마련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가 지난 15일 플러싱선교관(35-14 파슨스 블러바드) 개관예배를 드리고 22일부터 예배 시간을 변경한다. 이로써 동교회 예배시간은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플러싱), 2부 예배 낮12시(미네올라), 수요일예배 오후 8시30분(플러싱선교관), 새벽기도 토요일 오전 6시(미네올라)에 각각 드리게 된다.

▲문의: (718)962-5131



21세기요셉운동에 참석한 학생 청년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도자로 키운다”

제13회 요셉운동 수련회, 학생 청년 80명 참석

제 13회 요셉운동 수련회가 지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스키이크 루프트에서 80명의 학생 청년들과 찬양 팀, 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표회장 나광삼牧사는 등록자 일인당 100달러씩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등록을 받지 못해 어렵다며 차기에는 후원자를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열리고 있는 요셉운동은 저렴한 등록비와 매 회마다 대형수련회를 하고 있으며, 전라도, 경기도, 서울 곳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요셉 운동은 14년 전 나광삼 목사 에 의해 시작된 청소년 지도자 양육 영성 운동이다.

나광삼牧사는 “요셉은 30세 때 꿈을 이뤄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야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꿈을 이루고 난 뒤 오히려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꿈을 이루기에 앞서 먼저 요셉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변치 않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미움도, 시기도, 옹호도, 혼란도, 고난도 극복하며 지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라도 꿈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생할 줄 알며, 조국관이 확실했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룬 후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다. 21세기요셉 운동은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 받은 청년지도자를 양육하는 비전입니다. 한국과 미국문화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인 1.5세와 2세 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치관을 굳게 세워 현실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도록 하는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이민사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행통한 복을 받은 젊은이들이 각계각층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육하는 요셉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과 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요셉운동)



요벨스 합창단이 몽고메리교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게 하소서!”

132차 웨슬리신년축복성회, 강사 이용걸 목사

뉴욕웨슬리부흥전도단(단장 조영철 목사)가 주최한 2012년 132차 웨슬리신년축복성회가 지난 13일부터 3일간 뉴욕한국인그레이트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이용걸 목사(필라 영생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렸다.

단장 조영철牧사는 “종말을 향해가는 이 시기에 오늘 모인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한 경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3년 전부터 금식성회를 축복성회로 바꿨다”며 30년을 이끌어온 김삼모 목사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또 장로교 이용걸



김흥도 목사가 퀸즈장로교회 제직원수련회에서 설교 후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퀸즈장로교회 제직수련회, 강사 김흥도 목사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12일부터 나흘간 김흥도 목사(금란교회)를 강사로 제직수련회를 가졌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라는 주제로 열린 제직수련회 첫날 김흥도 목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본문으로 “신은 존재하는가”(히9:27)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설교 내용은 본지 1월 14일자 14면에 게재된 바 있다. 집회는 새벽과 저녁으로 진행됐으며 “둘째 날 ‘성령충만과 기도’(행1:4-8), 셋째 날 ‘참된 제자’(눅14:25-35), 넷째 날 ‘천국과 지옥’(계21:1-8) 제목으로 각각 말씀이 전해졌다.

김흥도 목사는 불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설교로 유명한



132차 웨슬리신년축복성회에서 이용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목사 강사 초청에 대한 설명도 했다. 조 목사는 “지난해 필라영생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말씀중

심, 평신도 훈련으로 성공적인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영생교회 이용걸 목사를 초청하게 됐다”며 “행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내 생애 가장 귀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성회 첫날은 이종범 목사(퀸즈중앙교회 담임) 사회로 찬양과 경배 뉴욕한국인그레이트교회 찬양팀, 환영인사 조영철 목사, 특별찬송 퀸즈중앙교회 찬양대, 말씀선교 이용걸 목사, 봉헌송 뉴하이드파크한국교회, 봉헌기도 이용모 목사, 알렘 양민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날 새벽은 양민석 목사 사회

로, 저녁은 김종일 목사(뉴욕성서교회 담임) 사회로 기도 최운돈 목사, 특송 뉴욕성서교회, 봉헌송 뉴욕드림교회 뱅델교회, 축도 송성모 목사, 주일저녁은 장재웅 목사(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담임) 사회로 기도 정광원 목사, 특송 뉴욕한국인그레이트교회 브루클린감리교회, 봉헌송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봉헌기도 윤국진 목사, 광고 조영철 목사, 축도 김재경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첫날 “축복을 받자”(고후8:9), 둘째날 새벽 “항상 힘쓰자”(딤후4:1-5), 저녁 “이렇게 살자”(수3:1-6), 마지막 날 “성화의 길을 가자”(겔47:1-12)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초행길을 바르게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가에 대해 본문을 들어 그 3가지로 길을 제시했다. “첫째, 언약계를 쫓아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하려면 버려야 한다. 셋째, 요단강에 들어서라. 교인을 위해 희생하는 목회자가 되라”며 “말하고 믿는 것과는 같이 가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의 헌금은 청소년수련회, 단기선교, 장학금 등 2세대를 위해 사용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회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12일, 뉴욕전도협회 신년하례 예배

뉴욕전도협회 신년하례예배가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김봉규 목사의 찬양 후 총무 박성원 목사의 사회로 노기승 목사의 기도여 이어 회장 김희복 목사가 “여호와께 맡기는 경영”(잠16: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모든 경영과 가정, 교회를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라. 그러하면 2012년이 복된 한해가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경영은 마음의 경영을 의미하며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복이 없고 응답이 없고 도움이 없으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다. 마음에 쌓인 것은 꼭 입으로 나온다. 기도가 쌓인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해 모든 행사

를 여호와께 맡기는 복된 사람이 되자”고 전했다.

설교 후 서기 김기호 목사의 광고에 이어 부회장 황영진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하례식은 협동총무 이재덕 목사가 사회를 맡아 1년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에 이어 김희복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종명 목사의 축사, 배영란 권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태국선교사로 떠나는 지고찬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활동보고, 임원소개 및 가족소개에 이어 김영환 목사가 마침기도 했다.

한편 뉴욕전도협회는 오는 2월 6일(월) 오전 11시 낙원장로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사제공: 뉴욕전도협회)

뉴욕고향 스타가비
New York Kom Tang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24시간 오픈
전화: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ADIDAS DISTRIBUTION
래퍼도 겸도 무술장이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sbm.or.kr
코리안 아티스트들이 SBMO를 사용합니다.
SBMO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CRISTIAN MOVEMENT
서울 [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미주신학 대학교의 미주신학대 학생들을 위한 필수 앱입니다.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신학도들을 위한 앱입니다. 신학도들의 삶을 위한 성경과 함께 공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특가 요금 판매
Tel: 718.463.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생각과 믿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전송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관련》 미주크리스천 대리점 리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경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8A
Flushing, NY 11354
lightloverny@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의 실이 나뉩니다.
전미주 및 해외인민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원본 선교회, 신학교, 기도회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Yemami Ave. #202 L.A., CA 90004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한글: 영문: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명 한글: 영문: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행할가계)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 헌금 영수증(영수증)도 보내주세요.

“겸손함으로 사역 감당 할 터”

남가주목사회 신년감사예배, 설교 오도석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신년하례 및 감사예배가 13일 오전 7시30분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에서 있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2012년 시무식을 위한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중훈 목사 사회, 고재원 목사 기도, 축도 엄기환 목사로 진행된 본 예배에 초청돼 말씀을 전한 오도석 목사(한국예수영성아카데미 원장)는 요한복음 8장32절을 통해 중용과 도덕, 영성과 거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를 통해 ‘남가주한인목사회를 위하여’, ‘각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미주한인회

와 교민들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조병철 목사, 서요한 목사, 김재울 목사, 이철훈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이날 김영대 회장은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45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약속한 것처럼 끝까지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목사회 신년하례감사예배 장소를 제공한 LA사랑의교회는 지난 연말 현재의 장소(전 미주성산교회자리 1111 W. Sunset Bl LA)로 이전했다.

(이성자 기자)



크로스선교회 남가주지부 운영위원들이 22일 열리는 ‘북한 어린이 후원회 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북한어린이 후원의 밤

크로스선교회, 22일 JJ그랜드 호텔에서

크로스선교회(이사장 배 훈 목사)가 주최하는 ‘북한어린이 후원의 밤’이 오는 22일(주) 오후 6시 타운 내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동영상 상영, 남가주장로총회장의 찬양, 간증 등으로 진행되며 이동원 목사(한국 지구촌교회 원로)가 설교자로 나서 북한선교에 대하여 전하게 된다. 또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주제 발표를, 고석찬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신임)가 격려사를, 남가주교회 회장 변영의 목사가 축도를 맡는다.

크로스선교회는 그동안 북한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SAM의료복지재단의 뿌리를 두고 있는 단체로 지난해 이 재단을 이끌던 박세록 장로의 전사 ‘생명을 살리는 왕진버스’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박 장로의 북한임국이 금지되자 박 장로가 북한 외에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SAM-Care를 운영하고 북한사역은 크로스선교회가 담당하게 됐다.

크로스선교회 남가주지부(지부장 백낙균 목사)는 10일 JJ그랜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작년 8월 31일부터 9월3일까지 방북했을 때 북

쪽 관계자가 결핵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며 이례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다. 평양에서 3시간 떨어진 농촌에서 운영하는 우리 진료소에서 환자가 생각보다 많음을 확인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한 핏줄로서 이념을 초월해 어린이 결핵 퇴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낙균 목사, 이민희, 제임스박, 박남수 장로, 최영태 집사 등 남가주지부 운영위원들은 “평양 등에 크로스선교회가 운영 중인 기아치료제 공장과 비타민 공장이 있다. 이중 비타민 공장은 현재 북한실정에 맞지 않아 결핵치료제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인도, 중국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해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인 사역을 투명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환자는 현재 약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어린이 30만 명 등 100만 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문의: (714)603-9827 (박준호 기자)



새로운 일군으로 세워진 임직자들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 이사회 창립예배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이사회 창립예배가 21일(토) 오후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다.

▲ 문의: 최대영 장로 (213)703-1740, 미주평안교회 (213)381-2202

로고스선교회 남가주지회 사무실 개관 기념예배

로고스선교회(대표 박도원 목사) 남가주지회 사무실 개관 기념예배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갖는다. 이날 설교는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회협 회장)가 맡는다. 로고스선교회 남가주지회의 지회장은 크리스티나 정 씨이며 장소는 3434 W 6th St, Suit 200, LA, CA 90020

▲ 문의: (213)384-3210

토랜스조은교회 창립21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

토랜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는 교회창립 21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를 22일(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 문의: (310)370-5500

GP선교회 MK 특별 찬양 집회와 감사 예배

GP선교회(미주대표 백운영 선교사)는 특별 찬양 집회를 27일(금) 저녁 6시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갖는다.

▲ 문의: (562)860-5451

오레곤 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 신년 감사예배

오레곤 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회장 양성환 목사)는 신년 감사예배를 22일(주) 오후 6시 포트랜드 중앙교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감사예배의 강사는 양성환 목사(오레곤 제일교회 담임/오레곤 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 문의: (503)626-6186

제19기 라파선교회 침술강의

라파선교회(회장 오덕삼 장로)는 제19기 선교여행 침술강의를 12일 오후 7시 생수의강교회(담임 강신욱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덕삼 장로는 “학의학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학이며 통계를 내려온 것이며 침, 뜸, 약 등이 대 표적”이라 말하며 오행 침과 기와혈, 경락 등에 관해 설명했다. 오 장로는 “인간의 장기는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에는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양에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등으로 나눈다”고 말했다.

강의 후 이 선교회 스템인 원장식 집사의 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침술강의는 전도와 선교 목



적으로 개최됐는데 4월 12일까지 매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계속해서 열린다. 라파선교회의 선교여행 침술강의에 대한 문의는 (213)703-0920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고난은 신앙의 밑천, 환경은 걸림돌 안돼”

국제개혁대 2012 봄학기 개강 영성수련회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황은영 박사)은 2012학년도 봄학기 개강 영성수련회를 16일과 17일 양일간 김윤배 목사(새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가졌다.

황은영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윤은영 대학원학생회 부회장이 기도를, 심기성 학우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날 김윤배 목사는 ‘그릇대로 주시는 은혜’(왕하4: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신앙의 밑천이 된다”고 말하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첫날 집회는 김남을 목사(분교 대학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 집회는 권미희 대학부학 생회 부회장이 기도, 이성수 학우가 성경봉독을 하고 김윤배 목사가 ‘내 가 너를 세웠노라’(렘1:4-1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 담임)가 축도를 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 장로 5명 등 임직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임직예배가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총 7부로 나누어져 예배, 장로장립식, 장로임명식, 피택장로 공포, 안수집사 임명식, 권사 임명식, 권면과 축하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신승훈 목사 사회, 기도 김상덕 목사, 설교 한기홍 목사, 권면 축사 안동주 목사, 축도 이 서 목사가 담당했으며 임직자들은 다

음과 같다.

△장로장립: 김호경, 송성훈, 이승윤, 조영호, 최대웅 △장로임명: 김남기, 최영웅 △장로피택: 권오성, 노현철, 윤현신, 이광수, 이종환, 임재출, 임제환 △안수집사 임명: 김경연, 김남규, 김진재 △조수사 임명: 박수남, 이기환, 이인호, 이창목, 이훈, 최상훈 △권사임명: 강윤숙, 김덕순, 김승연, 김영미, 김태정, 송선덕, 엄경자, 이미영, 이종애, 이현숙.

세계로떠나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담임목사: 김영대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대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전유필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환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라하브라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원식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배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미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재경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샌디에고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업바이닝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침례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신원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영복 주일 11:00, 7:30 목 11:00, 7:30 목 11:00, 7:30 (11:00-12:00) 목 11:00, 7:30 (11:00-12:00)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지지 논평

[미선라이프]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교계는 11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신중하고도 깊이 있는 재의를 요구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총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한국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학생 인권 향상과 아울러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창홍은 또 “성(性)에 대해 학생들의 바른 가치관 정립에 교육적 신중을 기하고 집회자유 부문에서 기존 정치권의 학생집회 이용,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홍은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시도가 필요하며 특히 종교교육 강화에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연회(대표 김승동 목

사)는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이라며 “서울시 의회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엄밀히 따져 독소 조항의 전면 수정이나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불교계가 주민 발의를 위해 앞장섰다는 것은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교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 집단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정치세력화하려는 독소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일로 5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인터넷, 기독교사회책임 등 231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연합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교육은 백년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계단체들 제정 촉구 종교방송 생존 달린 미디어법

종교방송의 생존이 달린 미디어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연계장치'에 막혀 이뤄지지 않자, 전국 각 지역 교계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종교방송과 지역민방을 살리는 미디어법 통과를 적극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대전, 포항, 춘천, 울산, 전북 등 전국 각 지

역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1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회는 본 회의를 소집해 미디어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교계단체들은 성명에서 “정치권이 거대 방송사의 로비에 굴복해 본 회의 개최를 지연하고 종교방송사를 생존의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KBS 수신료 납부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월로 미디어법 제정이 연기될 경우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과 맞물려 사실상 미디어법 제정은 물 건너가게 되고 방송사들은 무방상 상태에서 광고수주를 위한 무한 경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종교방송사와 지역 민방이 가장 먼저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전국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교회협의회, 성서화운동본부, YMCA, YWCA, 홀리클럽, 기독교시민단체 등 2백 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현재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와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미디어법’ 제정을 2월 국회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종교방송사와 지역 민방, 언론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미디어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CBS를 비롯해 종교방송은 경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 분석이다.

2012년은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10주년 “성경 전래지 마량포구에 기념관 세웠다”



우리 나라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 ‘아펜젤러 선교사(1858-1902·사진) 순직 기념관’이 준공됐다.

아펜젤러선교사순직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일남 감독)는 최근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남광현 목사)에서 아펜젤러선교사순직 기념관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고 16일 밝혔다. 예배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총연합회 관계자 및 강신훈 서천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작공 2년3개월 만에 완공된 이 기념관은 연면적 350㎡(106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체행관, 전시관, 선교역사 자료실, 전광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전광대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 장소인 여청도를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

추진위는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순직 110주년을 맞는 오는 6월 11일 개관 및 봉헌예배를 드릴 계획이며 현재 8억5000만원용 목포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서천군과 협력하여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성역화사업’을 마량

포구 일원에 추진하고 있다. 기념관 아래 해변 쪽으로 성경전래길(바이블루트)과 수양관, 선교사 숙소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은 최근 성역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인건 용역회사에 의뢰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구한말 우리나라에 건너와 서구 근대문명을 전파한 기독교 선각자다. 배재학당을 세우고 성경 한국어 번역사업 및 순회활동을 펼치는 등 교육과 선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1902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린 성서번역출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편으로 인천을 출발하여 목포로 가던 중 6월 11일 서면 마량리에서 48km 전방에 위치한 어청도 인근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순직했다.

아펜젤러선교사순직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일남 감독)는 최근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남광현 목사)에서 아펜젤러선교사순직 기념관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고 16일 밝혔다. 예배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총연합회 관계자 및 강신훈 서천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지법, 한기총 10·28실행위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최규하 목사 이 13인이 최근 제기한 지난해 10월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실행위원회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월 28일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에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한기총 분열 절대 없을 것” 예장통합 등 21개 교단·10개 단체 정상화 특별기도

예장통합 등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21개 교단과 10개 단체 목회자 800여명은 12일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예장통합 박위근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직전회장 양병희 목사 등 목회자들은 기도회에서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교회 지도자의 영적 쇄신과 각성을 위해 간절한 통성 기도를 드렸다. 이어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한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문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할 한기총정상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목회자들은 결의문에서 △논쟁 파행과 불법적 조치로 진행되는 정

기총회를 중지해야 한다 △지금이 공공회장을 잠정하고 언론에서 부적격자로 검증된 총회장 박 위근 목사를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기총 회부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한기총 회와 사회 앞에 희망으로 약속된 7월 7일 특별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정관 및 제반 규정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기총에 집투한 이단 및 이단 관련 인사를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한기총 재직 및 행정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의 요구가 시행되지 않고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가 강행될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기총 현 집행부에 있음을 밝힌다 등의 6개항을 주장했다.

한무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오는 한기총 정기총회와 새 대표회장 선거도 합법적으로 성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인측 예장 합심 박종인 총무는 “정상적인 교단을 위법하다며 행정 보류시키고 일방적으로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한기총 분란의 불씨”라며 “이 결정에 관계없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업시간: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5:00 새벽 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 256-2266, (718) 363-2226, Fax: (718) 256-4895 40-78 Pitkin Ave., Flushing, NY 11354 www.agsmny.com</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업시간: 오후 2:30 수요 예배: 오후 6:00 공로 예배: 오후 5: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 247-9196, Fax: (718) 247-8433 42-56 Astor Ave., Queens, NY 11354 www.nykyw.org</p>	<p>뉴욕빌라리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재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업시간: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6:00 공로 예배: 오후 5: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새벽 기도회: 오전 9:00</p> <p>TEL: (917) 291-1977, Fax: (917) 291-1961 2 Beacon St, West Village, NY 10014</p>	<p>뉴욕새사림교회 담임목사: 이준원 주 일 예배: 오전 10:3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공로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6:00 공로 예배: 오후 5: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p> <p>TEL: (718) 267-2277, (718) 267-3171 45-04 82 St, Flushing, NY 11355</p>	<p>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수업시간: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새벽 기도회: 오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9:00</p> <p>TEL: (718) 241-7676 / FAX: (718) 241-8777 49-10 82 St., Flushing, NY 11355 www.ysknny.com</p>	<p>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계명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업시간: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 오전 5:45 (월-토)</p> <p>TEL: (718) 227-2377, FAX: (718) 227-1022 840-79th Street, Flushing, NY 11352</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업시간: 오후 1:00 수요 예배: 오후 6:00 공로기도회: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718) 228-3229, FAX: (718) 227-4376 45-17 82nd St., Flushing, NY 11354 www.earlychurch.org</p>
<p>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거라 1부 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0:15 4부 예배: 오전 10:30 5부 예배: 오전 11:30 6부 예배: 오전 7:30 7부 예배: 오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p> <p>TEL: (718) 767-8726, 2222, Fax: (718) 767-3171 42-15 Pitkin Ave., Flushing, NY 11355</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 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월-토] 6:00</p> <p>TEL: (908) 342-8164, Fax: (908) 342-8164 309 Route 41, Rockaway, NJ 0786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현 주 일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8:30 수요 예배: 오전 10: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367-7177, Fax: (718) 367-3021 27-47 104 St., Flushing, NY 11354</p>	<p>풍아일랜드성경교회 담임목사: 김계명 주 일 예배: 오전 11:30 공로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8:30 수요 예배: 오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p> <p>www.prairiepoint.org TEL: (718) 232-1797 / FAX: (718) 232-4284 126 Edison Ave., Neerburg, NY 11564</p>	<p>헷타니교회 담임목사: 장종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업시간: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전 7:00 수요 예배: 오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새벽 기도회: 오전 9:30</p> <p>TEL: (516) 432-3366, (516) 432-3367 62-10 47th Ave., Forest Hills, NY 11355</p>	<p>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재 주 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업시간: 오전 7:30 수요 예배: 오전 6:00 공로기도회: 오전 8:00</p> <p>TEL: (718) 282-8218, Fax: (718) 282-8433 62-10 47th Ave., Woodside, NY 11357</p>	<p>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대영 1부 기도회: 오전 7:00 2부 기도회: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45 4부 예배: 오전 11:45 5부 예배: 오전 2:30 6부 예배: 오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p> <p>TEL: (732) 762-0444, FAX: (732) 762-0284 466 W. Dover Ave., Asbury Park, NJ 07921 www.uchknj.org</p>
<p>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 일 예배: 오전 12:3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후 5:00 공로 예배: 오후 7:30</p> <p>TEL: (718) 767-8680, burtweir@burtweir.com 70 Flushing Rd., Maspeth, NY 11350</p>	<p>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익 주일 1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 예배: 오전 2:00 수요 예배: 오전 6:00 수요 예배: 오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p> <p>TEL: (718) 219-7941, 7940 169-12 73rd Street, Woodside, NY 11358</p>	<p>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 일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8:00 수요 예배: 오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p> <p>TEL: (732) 766-2622, FAX: (732) 227-8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p>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업시간: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전 7:00 새벽 기도회: 오후 2:30</p> <p>TEL: (917) 866-4240, Fax: (917) 866-7799 142-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2nd.org</p>	<p>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 일 예배: 오전 8:00 (1월) 주 일 예배: 오전 10:00 (2월) 수업시간: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후 1:00</p> <p>TEL: 718-472-118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c.org</p>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아아름 주 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7:30 수요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TEL: (914) 277-1103, Cell: (917) 622-6109 79 School St., Great Neck, NY 11042 www.hanmaim.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합법화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L.A.: Tel: (323) 866-0009 Fax: (323) 866-0048 N.Y.: Tel: (718) 688-4480 Fax: (718) 688-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p> <p>TEL: (55) 3277-1485, Fax: 3278-6543 Rua Amador F. De Castro, 4 Post Box 91279-012</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복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6:00 수요 예배: 오전 7:00 수요 예배: 오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 55-11-2070-8223, 8277-3141 R. Lúcio Alves R. Liberdade SP CEP 01053-010</p>	<p>브라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 일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8:00 수요 예배: 오전 5:00 새벽 기도회: 오전 7:00</p> <p>TEL: (011) 55-11-2070-8754, 8056-1169 Rua São Tiago, 575-342-340 FAK-0-52482</p>	<p>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병연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전 8:00 수요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전 8:30 수요 예배: 오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7:30</p> <p>TEL: (011) 54-635-7189 AV. CARABOBO 1253 CAP. FED. B.B.A.A. ARGENTINA</p>	<p>침례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이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7:30 수업시간: 오전 8:30 수요 예배: 오전 8:00 수요 예배: 오전 7:40 (월) 수요 예배: 오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TEL: FAX: (908) 539-7826, (908) 539-6309 Santiago Corner - 3 Calle 325 Chile</p>	<p>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서사: 임환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의 확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5:00 (1, 2, 3부 순서로 진행)</p> <p>TEL: (596) 271-574-8663 E-mail: hseoul@paraguay.com Carvertono RD. 1001, Asunción-PARAGUAY</p>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소중환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역을 시작한 지 21년, 그리고 온두라스로 파송받은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는 기도로 온두라스 사역을 섬겨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주시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

님께서 귀한 섬김에 크게 감사드리며,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파송 받을 때 중학생이던 유진이가 벌써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된 것을 보면 지난 10여년의 시간 속에 큰 변화가 있었네요.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 이곳에 와서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다섯아이 모두 학교에 내는 등록금만 거의 매월 1,500불-2,000불 정도) 집에서 홈스쿨링 한 것이 었는데 같은데 명경이는 대학 4학년, 유진이는 대학 3학년, 희건이는 올해 11학년인데 일찍 조기졸업을 해서 온두라스에서 저를 돕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막내 혜진이는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네요.

매달 보내드리는 기도편지를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연초(2011년 1월)에 저는 현재 영어 섬김에 붙들려 인도인과 더불어 살면서 선교하고자 아자꾸알과 마을이라는 산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마을에 들어서서 선교관 공사(전기공사, 물탱크 공사, 정화조 공사, 바닥 타일 공사 등)를 수개월 동안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 주셔서 마침내 5월 중순에 전기가 연결되었는데, 얼마나 기뻐했지요. 전기를 연결한 후에 산골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렌카 특유의 문화를 익히며, 현지인의 삶을 흥내 내는 일을 시작으로 조금

씩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삶을 공유하며 “복음을 그려내는 삶”을 통하여 렌카 인디언의 삶이 복음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두렵지만 poco a poco(조금씩) 모두를 품는 주님의 삶을 흥내 내고 있습니다.

2011년에 교회에서 파송받은 후 멕시코에서 언어훈련을 하고 온두라스에 와서 2002년 처음 이 땅 렌카 인디언 마을을 섬기기 시작할 때는 개신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남침례교회 선교사 한 분, 그리고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사역자들이 있었지요. 대부분의 렌카 마을 사람들은 가톨릭신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문화적이며 관습적인 신앙이요. 그러나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미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톨릭의 영향

으로 좀처럼 변화를 하지 않는 농촌 특유의 “응고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개신교도 신자(?)들도 “예수를 믿어주는 신앙”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회색화 된 죽은 신앙을 살아 역사하는 신앙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기도제 목입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가운데 “살면서 선교하면서” 즉 함께 살면서 “복음을 그리는 삶”을 통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결정하고 이 곳 산골마을로 들어 왔습니다. 아직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없는데도, 이들의 삶은 얼마나 가난한지 이 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몇 알의 약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저께도 성도의 핏이 죽었는데,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되어 어린 아이가 죽었습니다.

리스라는 사람은 흑인지도자인데 그의 죽은 날을 기념하여 브라질에서는 11월20일 소위 “핀시엔시아 네그라(CONCIENCIA NEGRA)”-흑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의미로 공휴일로 지킵니다.

루이자 대학 입학: 디마스장로님 딸 루이즈가 유니베(unip)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녀는 4년간 피지오테라피아(fisioterapia)를 전공하게 됩니다.

노시영선교사, 마리아 마르친스 할머니 심장검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성도 마리아 마르친스가 병원에서 “까매르리조모” 심장혈관조영검사를 받고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6-7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노시영선교사와 김향실 선교사(최추회복) 마리아 마르친스의 건강을 위해
- 동재 아들을 간암으로 잃은 김할수 목사가정에 특별한 주님의 위로를 넘기기를
- 흥기원선교사(목포상리교회 파송)의 가정이 잘 적응하며 언어에 전진이 있기를
- GMS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 현진인교회 어린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도록(노수진, 조나타스, 엘로아, 말레나, 가브리엘, 레미아, 흥찬양, 홍성찬, 흥영찬, 노명수, 노명환, 헤베카, 엔젤)
- 프란시스꼬 모라토 교회(이흥우 양인경 선교사) 분당 건축을 위해
- 노시영, 김향실, 이흥우, 양인경, 노덕영, 박해진, 흥기원, 박한주 드림
- 이메일: nohsyung@hanmail.net

우며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성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신체적 영역-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 신체를 위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와 신체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우며 △정서적(사회적)영역-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며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친절, 정직, 근면한 크리스천으로서 베품 줄 알고 섬김 줄 아는 어린이로서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서 사랑 받고 존중 받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102명의 빈민 아동가정들을 방문하며 지난 7년 동안 멀리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판자촌에 살고 있는 그들의 존재도 알지 못해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는 꿈이 이야기 할 때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칩니다. 아동들이 복음의 귀한 접점점으로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4월10일 빈민마을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여러 교회와 후원자) 현재 뉴욕신광교회의 지원으로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와 서울 일부 어린이집 꼬마친구들이 멕시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방과후 공부방 설치 위해 저금통에 모금하고 있는데 모금이 도착되면 이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캔昆

할렐루야!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지 소식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하나,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캄昆 아동개발센터가 현지인 살롬교회에 오픈되었습니다. 도시 빈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어렵지만 아름다운 의미가 새롭게 깊이 다가옵니다.

둘, 1기 사역으로 지난 7년간 레오나비카리오 학교사역으로 동역해온 세광국제선교회(미국 아틀란타 GMA선교회(42개 교회연합)과 합병이 되었습니다. 중남미 선교의 교두보가 될 그곳에서 선교사 훈련원 및 현지 목회자 훈련 등 사역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학교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유치원을 폐원하지 않고 마을 안으로 이전하여 판매업 유치원, 축소 건축비를 GMA에서 모두 담당하기로 하고 저는 유치원 운영과 GMA에 리더십이 세워질 때까지 측면에서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추후 아동 개발센터 프로그램에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 선교현지에 돌아오니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른 환경들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 모든 것을 기도했는데 주신 응답들이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함을 깨달아 온 세상이 복음화 되는 선교 완성을 위한 24,365 기도자로 동역합니다. 결정한 기도시간을 잘 지키며 견고한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넷, 지난 4월에 결혼한 아들 하 지수, 며느리 딸 김유진이가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엠 개발 회사를 독립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희건이는 놀이를 통한 수학 교육 교사로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섬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하나님께서



선교지 편지

당신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땅에서 자녀들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지은 죄가 다 깨끗해졌는데도 아직도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는 깨끗한 마음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맘을 지켜주시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사하면 너희와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도 감사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교계획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결연 아동들과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칸昆 아동 개발 프로그램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2. 4월 10일 빈민마을에 공부방과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3. 레오나비카리오 유치원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4. 선교 완성을 위한 24,365기도자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5. 차라준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규식 선교사
이메일:3374min@hanmail.net



민아동 102명과 한국의 기아대책 후원자들이 연결되어 내년 1월부터 방과 후 학교로 주 2회 4개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현지인 스태프들로 진행됩니다. 아동개발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족, 지역의 교회와 지도자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필요를 충족 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린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영역적영역-성경적 관점에서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하심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교육적(직업)적 영역-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필요를 도

수요: 오후 5:30~6:30 (토요일)

이웃사랑: 오후 7:30~8:30 (토요일)

수요: 오후 8:30~9:30 (토요일)

수요: 오후 9:30~10:30 (토요일)

수요: 오후 10:30~11:30 (토요일)

수요: 오후 11:30~12:30 (토요일)

수요: 오후 12:30~1:30 (토요일)

수요: 오후 1:30~2:30 (토요일)

수요: 오후 2:30~3:30 (토요일)

수요: 오후 3:30~4:30 (토요일)

수요: 오후 4:30~5:30 (토요일)

수요: 오후 5:30~6:30 (토요일)

다.

또한 고양시와 서울 일부 어린이집 꼬마친구들이 멕시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방과후 공부방 설치를 위해 저금통에 모금하고 있는데 모금이 도착되면 이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다.

또한 고양시와 서울 일부 어린이집 꼬마친구들이 멕시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방과후 공부방 설치를 위해 저금통에 모금하고 있는데 모금이 도착되면 이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브라질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준비로 건설 붐이 한창입니다. 한국기업 중 현대자동차 공장건설(베라시까바시), 효성중공업(조인빌리시), 현대중공업, CJ(베라시까바시), 삼성조선(헤시피시) 등 여러 기업이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한말: 새로운 선교사 가정 도착

목포상리교회 파송으로 흥기원선교사가 11월 30일 도착해 언어학교 근처에 정착하여 현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노현진 연방의과대학 졸업: 6년의 과정을 마치고 12월15일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번이후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실기, 면접시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데니제 자매 준비, 싸우마리스 대학 행정학과 졸업: 째뵈, 림 뽀교회 1993년 설립시 여고생이었던 데니제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직장, 학교를 오가며 드디어 준비 싸우마리스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준비 싸우마

데니제 자매 준비, 싸우마리스 대학 행정학과 졸업: 째뵈, 림 뽀교회 1993년 설립시 여고생이었던 데니제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직장, 학교를 오가며 드디어 준비 싸우마리스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준비 싸우마

데니제 자매 준비, 싸우마리스 대학 행정학과 졸업: 째뵈, 림 뽀교회 1993년 설립시 여고생이었던 데니제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직장, 학교를 오가며 드디어 준비 싸우마리스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준비 싸우마

데니제 자매 준비, 싸우마리스 대학 행정학과 졸업: 째뵈, 림 뽀교회 1993년 설립시 여고생이었던 데니제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직장, 학교를 오가며 드디어 준비 싸우마리스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준비 싸우마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대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라교회 담임목사: 김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경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광주신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돈돈한국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목회 기도회: 오후 7:00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상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정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사이영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10:3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경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인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승평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덕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안양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왕성교회 담임목사: 권자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창도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청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인/터/뷰 최창수 목사(용인중부교회)

신앙은 '넓이' 아닌 '깊이'... 바로 믿고 올바르게 살아야

용인중부교회 최창수 목사가 9일-12일 남가주지역교회(담임 박용덕 목사) 부흥 성회 인도 차 LA를 방문했다. 본지는 전도의 불모지였던 용인에서 천막교회로 개척, 대형교회로 성장한 용인중부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982년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 연구도 없는 용인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4년 만에 새 성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는 감격을 맛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매년 새로운 교회 표어를 만들지만, 저는 개척당시부터 지금까지 ‘오직 전도를 위하여’라는 한 가지 표어만을 내걸고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다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올 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 용인중부교회, ‘오직 전도를 위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전하는 최 목사에게 부흥의 비결을 물었다. 당연히 선교나 기도 같은 거창한 목회 비전이 담긴 목회 노하우(Know How)를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최 목사는 ‘전도특공대’와 ‘동호회’를 소개했다.

용인중부교회의 ‘전도특공대’는 용인시에 이미 잘 알려진 전도대원들이다. 15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들에게 걸리면 교회에 안 나가고 버릴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만큼 전도 대상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교회로 오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도가 되지 않는 개척교회를 위하여 원정 전도까지 해주기도 한다.

또 하나 전도의 별동부대는 각종 동호회이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볼링, 골프, 등산 같은 체육 동호회와 각종 악기는 물론 미술, 요리 등 다양한 문화와 취미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된 동호회가 많다. 이 동호회를 통해 뜻이 맞는 성도들이 함께 취미생활을 하며 돈독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교회로 인도하는 점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인중부교회의 동호회 모임이다. 이런 동호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사역에 동참하고 선교지도 말아 선교에 앞장서게 된다. 결국 이 동호회는 ‘오직 전도를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최 목사는 설명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독특한 구역공과 활용이다. 담임목사의 주일 설교를 정리해 구역공과로 만든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구역모임을 통해 다시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도들의 삶속에 스며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유로운 모임을 통한 헌신과 말씀이 모아져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뜻일까? “목회는 행복한 것”이라고 최 목사는 덧붙인다.

최창수 목사는 행복한 목회뿐만 아니



향을 물었다. “지금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한국도 경제가 어려워지니 재정도 마이너스지요. 지난해에 예산달성한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어렵다 보면 한국선교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개혁이란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개혁의 어려움을 안고 있지요. 그러나 선교전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전망은 좋고 세계화에 눈을 돌리니 재정지원만 되고 여건이 갖추어지면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많지요” 최 목사는 한국교회가 어려움

전도특공대와 동호회로 교인 연합활동 '내 교회' 뿌리내리는 신앙모습 보여야

라 이름난 부흥사이기도 하다. 현재 노회장이기도 한 최창수 목사는 교단총회에서도 큰 직책을 맡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된 것. 최 목사가 담당하는 총회연금재단의 사역에 관해 묻자, “우리 총회연금재단 가입자는 12,000명 정도이고 자산은 2,700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은퇴목사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거나, 목회 중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장애 연금, 목회자가 세상을 떠나면 사모에게 50%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은퇴목회자나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들을 돕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연금재단에서 연금을 받기까지는 조건이 있었다. 20년 이상 연금을 부여 받고 노회에서 은퇴를 한 65세 이상의 목회자라야 하는 것. 20년 이상 연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사례비에 비례하여 적당한 수치의 연금을 받는다면 은퇴한 이후에 어려움을 면케 된다는 것이 최 목사의 지론이다.

연금재단의 자산이 이렇듯 많다보니 신임이사장인 최 목사의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최 목사는 “연금재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이다. 연금 가입자들이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연금재단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연금재단을 위해 기도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은퇴 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교단의 연금재단 사역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듯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신학교 교수로, 노회장으로 연금재단 이사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최 목사에게 한국교회에 동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쉬지 말아야 할 선교의 전망은 밝다고 진단했다.

부흥집회 중 새벽예배를 마치고 K타운까지 달려와 인터뷰에 응해준 최창수 목사에게서 미주 한인들을 향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한인성도들을 향해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했다.

“동포들이 순수함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 80년대의 열정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한 교회에 대한 애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교회에 목숨 바쳐 섬기겠다는 마음이 희박하지 않은지요? 신앙이란 넓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이의 세계가 아니라 깊이의 세계가 신앙이요. 그래서 이번 집회 주제가 ‘바른 신앙, 바른생활’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자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의 결핍을 안타깝게 토로하는 최 목사는 “뿌리내리는 신앙이 되어 달라”고 거듭 피력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가 섬기는 목사는 한 사람이요. 우리 담임목사에게 충성하고 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뿌리내리는 신앙입니다”

최창수 목사는 장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 신학대학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목회학박사)을 수료했다. 현재 오사카 신학대학, 뉴욕장신 겸임교수이며 1982년 용인중부교회 개척 후 현재까지 시무중이다.

http://yjbc.onnam.com

(이성자 기자)

특/자/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카드

크리스틴 조(성암교회 집사)

지난 해 크리스마스 전 날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세 노인 분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눈 구경을 시켜드렸다. 세 노인분 모두 다 아프신 분들이다. 한 분은 심장이 약하여 계단 오르기를 숨차하시고, 또 한 분은 무릎관절이 약하여 지팡이를 짚으셨다. 또 한 분은 당뇨가 심하시다.

아침 10시에 한인타운을 출발하여 도중에 유명하다는 큰 외국 식당에 들러 커다란 접시의 생선조림과 함께 푸짐하게 아침식사를 대접하고 다시 차에 올라 목적지를 향하였다. 몸들은 아프지만 LA에서 보기 힘든 눈을 보러 간다니 모두들 어린아이같이 들뜨고 즐거워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한 낮의 태양이 추운 날씨에 차갑게 빛나고 있는 거대한 눈 덮인 산 위에서 스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올라갈 자신들이 없어하니 그 집사님은 다시 우리 일행을 차에 태우고 그 맞은편 산에 앞으막이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안내하였다.

눈 덮인 언덕길을 집사님이 심장 아픈 분을 모시고 조심히 오르고 나와 친구는 다른 두 분을 모시고 조심 조심 올랐다. 도중에 눈을 문쳐서 던져도 보고 ‘치-즈’ 하며 이를 드러내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게 오르니 어느 사이에 언덕 꼭대기까지 올랐다.

아가 분 눈산에 수많은 스키어들이 하얀 도화지에 알록달록한 작은 점들처럼 찍혀있는 정경이 눈앞으로 들어왔다. 맑고 쓸쓸한 공기를 들이마시니 몸이 벌써 다 나을 것 같아도 두들 기뻐하며 야호를 외쳤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머리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카드’가 그려졌다.

나의 가슴 속에 그려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카드’ 속에는 우리들이 주인공이다. 눈 위를 한 천사의 인도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노인, 아픈 가슴에 손을 얹고 작은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걷고 있는 분, 그리고 친구와 나까지 주인공이 되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하얀 눈 위에 지팡이 자국과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뒷모습의 장면이나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진으로 찍혀서 나와 함께 살아서 나에게 매일 매일 아름다운 영혼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이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랑을 전하는 날이며 가족보다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날이다. 아름다운 영혼이 담긴 가슴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실천하는, 하나님을 보내신 천사와도 같은 집사님에게 넘쳐도 모자라는 감사와 박수를 마음껏 보내드린다.

선교지 편지 / 온두라스

(13면에서 계속) “조금만 불편하게 살자”는 정신으로 선교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몇알의 약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몇 푼의 돈이 없어서 벽이 없는 집에서 동물과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게 살면서 이들을 돕는다면 이들에게 작은 소망을 줄 수 있리라 믿습니다.

또 한해를 보냈습니다. 별로 한일도 없는데... 주님 앞에 송구할 뿐입니다. 좀 더 열심히 살겠네... 그러나 새해 2012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온두라스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카 인디언들을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주시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늘 깊이 감사하면서 온두라스 아자꾸알과 산속에서 여러분의 선교사 장세균 드립니다. 기도 제복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선교사 안전: 산골에 외국인으로 살아가기에 주변에 많은 주목이 되고 있으며, 온두라스는 총체적인 치안부재의 상태임
3. 교회 건축: 몽케카구아 교회 설계와 건축(Jae Cha 교수님)과 산이시드로 교회 건축
4. 새로운 지역교회 개척지(나랑호, 우니온, 산로렌조, 몬테베르데, 몬테베르데 우니온)를 위하여
5. 제3기 아자꾸알과 성경학교(학생 10명)와 몬테베르데 성경학교 (인턴십 2월 중 첫 강)
6. 겨자씨학교 첫 학기 마무리와 학생들 여행(수도 테구시갈파)
7.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Yadirra 선생, Andres 형제, Agustín 형제)
8. 부족한 선교비를 위하여
9.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항안 목사가 목회자들이에게 드리는 신바람 목회의 부식돌!

교회력에 따라 만들어진 1년 52주 주일예배와 특별예배를 위한 설교와 예배 가이드 북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항안 선종목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항안 목사 저
- 판형 : 4×6판 / 80쪽
- 가격 :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니다.

김항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성탄절 문답의 대박!

Why Christmas?

- 왜? 크리스마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는가?
-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한 대상으로 만들어 가는가?
-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설교 46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예화 127편
- 판형 : 신국판 / 416쪽
- 정가 : 10,000원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카드 실제모습]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 교회주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과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성구예 대한 심판설교 제공
- 주문 수령만큼 '책갈피' 제공

은혜스러운 송구영신 영상비디오

- 참회, 김통, 소망 절단이 있는 영상비디오 & CD

한국교회정보센터 ▶ 웹글로리아

www.kcdc.net
824-3004, 5004

반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새라김 사모
(Christian Coalition 설립자)

아는 게 힘!(1)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은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는 미국의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법안들과 사회 이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12년은 미국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과 더불어 우리들의 신앙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러 법안이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명하고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의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을까요? 분별력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서는: △Voice Up! 우리들의 의견을 알리고 전달하기(Online)나 청원서를 통한 서명 운동, 또는 직접 보이콧 Boycott) △Take Action! 잘못된 곳들 후원하지 않기(Starbucks나 Macy's 같은 곳 등 아래도표 참조) △Tell Friends! 사람들에게 알리기, V.T.T.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가정, 국가,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뿌리 채 흔들고 있는 법안 또는 우리들에게 좋은 법안들 및 이슈들을 한 가지씩 알려드립니다. 한인사회가 의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장 시급한 DOMA 헌법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DOMA 법안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미국 전 지역에 알

리어서 online petition에 꼭 사인하도록 장려해서 가정의 올바른 가정 가치관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DOMA-Defense of Marriage Act란 무엇인가?

DOMA는 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항1: 이름을 DOMA(Defense of Marriage)라고 결정. 조항2:



하나의 주(State)가 동성애결혼을 또 다른 주(State)에 법적으로나 무엇으로도 강요할 수 없다. 조항3: 결혼의 정의와 배우자에 대한 정의들을 오직 "남, 녀만의 연합"이며 "남, 녀 사이에 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한 법안이다. 또한, DOMA는 미국 헌법의 48조에 14수정안의 "동등한 보호 요구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DOMA의 간단한 경위
법안이 제정된 배경: 1993년 미국에서는 하와이가 동성결혼에 대한 법안을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주(State)가 됨. 이 일을 통하여, 보수파 정치인들에 의해(대부분 공화당) DOMA법안이 만들어지고 상원과 하원에서 342 대 67의 투표와 85 대 14의 투표로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1996년 9월 21일에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에 의해 서명됨.

DOMA가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큰 3가지 이유들

1. DOMA는 현재 가족 법률을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만들고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며 국가 차원에서 '전통 가치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연방 국방부(Federal) 헌법이다. DOMA라는 헌법이 존재함으로써 인하여 전통 가치관을 반대하는 쪽의 법안과 정책(policy)에 말려들 위험이 훨씬 줄어들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정의가 남녀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존중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DOMA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결혼관의 여러 가지 조작들을 연방부 차원에서 미리 방지시켜준다. 새로이 연방정부로 올라오는 결혼 법안들은 DOMA의 "결혼의 정의"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므로 남녀만의 결혼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기동과 "정통 결혼"의 기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헌법이 바로 DOMA이다. "Yes on Prop 8" 캠페인 때도 DOMA가 튼튼한 법적 기동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3. DOMA는 연방정부 헌법이 무너지는 경우, 전통적인 남녀만의 결혼 뿐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는 "성"에 연결되는 모든 교육들까지 크게 혼돈을 겪게 된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과 심대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성적 범죄율도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에 Macy's 백화점에서 여자 탈의실에 여장한 남자가 들어가려는 것을 여직원이 못 들어가게 했다가 해고당하고, 이 같은 경우가 점점 많이 생긴다는 리포트가 들어와 있다.*

그 뿐 아니라 성적 혼란에 의한 정신적 질환이 높아짐으로 사회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더 급증할 수 있다.

* Macy's 경우들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Macy's가 잘못된 정책(policy)을 바꾸고 여성들을 존중하기까지 쇼핑을 Macy's에서 안하겠다는 사인을 하며 Macy's를 보이콧하고 있다. 1분 사인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은 분은 TVNEXT.org에 가시면 사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성경과 씨름하자(시119:81-88)찬367장

본문에 성경과의 관계로 생기는 성도의 체험은 진실한 수고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첫째, 그는 피곤하기까지 사모했습니다(81). 피곤하도록 수고하는 사모심은 성경을 깨닫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실의 언어는 구태의연한 마음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에 열립니다. 둘째, 진실한 말씀의 만남을 원했습니다(86). 그는 말씀의 진실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그의 말씀도 진실합니다. 최대의 진실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소생을 기대했습니다(88). 소생이란 부흥, 개혁, 새로움을 가리킵니다. 역사적 사건과 기록자의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성경은 모든 오류에서 보호를 받은 정확무오한 영감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산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요 성경말씀의 움직임에 사로잡힙시다.

화 말씀의 능력(시119:88-96)찬94장

성경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동질의 것임을 아는 시인은 성경의 능력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첫째, 창조의 말씀(89)-혼돈과 공허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심을 말씀의 열매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유에서 더 나은 유를 만드심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에서 생긴 것은 너무 기이합니다. 창조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는 새해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섭리의 말씀(90-91)-이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만유를 불드십니다. 눈

에 보이는 것이 없고 전하는 말이 없어도 말씀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 속에 그 절정을 이루기에 성도는 그의 말씀만으로 유일한 위로를 삼습니다. 셋째, 완전한 말씀(96)-동시에 창조와 섭리의 말씀은 종말의 완성을 이루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완성하십니다.

수 목상의 즐거움(시119:97-104)찬205장

성경 낱말, 구절 하나하나에 마음을 집중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묵상실천은 우리로 기이한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성경은 항상 최고의 경험을 앞서기 때문입니다(99).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적 경험을 구하는 성도가 진정한 선견지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은 세상 지혜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98). 스승의 지혜는 많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나 성경의 가르

침을 앞서지 못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머리인 여호와 경외심은 오직 성경을 바로 대할 때 배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자는 모든 지식의 근본을 소유한 자입니다. 셋째, 성경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133). 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 꿀보다 더 단 체험은 성경과 연합할 때 일어납니다. 이 단 체험은 생명의 체험이며 하나님의 사랑 체험입니다. 성경에 착념함으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목 말씀의 빛(시119:105-112)찬193장

성경은 어두운 영혼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은 말씀의 단맛, 보배 그리고 능력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둠에 비추는 빛을 보는 것은 성경묵상하는 자가 맞보는 세계입니다. 첫째, 등불의 체험(105-107)-가는 길과 걸음을 바로 알게 해주고 안정과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좁은 길을 찬송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빛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유의 체험(111-

112)-엎어 때는 환경에서도 성경에 사로잡히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지배하는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줄이 얽어매거나 불의의 창수가 물려와도 성경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의 자유를 누립니다. 셋째, 자유의 체험(108-109)-고난을 당할 때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시인이 성경을 영원한 기쁨으로 삼은 이유가 치료된 자기 영혼에 하늘의 즐거움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금 시온을 사랑하는 자(시129:1-8)찬189장

시온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본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성, 마른 땅, 피난처의 뜻인 시온이란(삼하5:7) 이스라엘, 시나산,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 천국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 시온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둘째, 시온을 멸시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시온을 멸시하는 세상은 성도의 길인 복음을 경시합니다. 이 틈에서 여러 갈등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시온을 사랑합니까? 1) 시온의 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온에서 나온 말씀만이 생명이며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우환 속에서도 말씀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2) 시온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히3:14). 믿음을 화합하는 기도로만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3) 시온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중심한 삶을 합시다.

토 여호와께 부르짖자(시130:1-8)찬479장

항해 길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주님이 타신 배에도 갑자기 강풍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첫째, 어디서 부르짖었나요? 깊은데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기가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무엇을 기대하며 부르짖었습니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히11:6) 시인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1) 풍성한 구속을 바라며 부르짖었습니다(8).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음과 그 목적이 경외신앙을 갖게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2) 주의 말씀을 바라며 부르짖었습니다(5).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열매를 맺기에 말씀과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 주를 바라며 부르짖었습니다(5-8). 이런 고난 과정은 결국 주님을 만나 그의 형상으로 화하는데 있습니다. 노여움을 찬송으로, 반석을 뜻으로, 차들을 샘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국에서 만납시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강사



김웅도 목사
 • 금란교회 동사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왕인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송용걸 목사
 • 신천교회
 • 현지대회장



이영선 목사
 • 불티모어장로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함계하는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송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장영준 목사
 • 본지 발행인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명		
소개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민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 한국현지등록: 50불(숙박제외)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 (Senior 1,160불)-아시아나항공
 LA 서울 왕복 항공료: 1,220불 (Senior 1,130불)-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